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76호
2025년 09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contact@snuaa.org

서울대 홈커밍데이 10월 19일

제주도 관광 10월 21일~25일 | 4박5일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오는 10월 19일(일) 관악캠퍼스에서 「2025년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 올해는 서울대가 관악캠퍼스로 종합화된 지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관악에서 이어온 반세기의 역사를 돌아보고 세계 곳곳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온 동문들이 다시 모교에서 하나로 만나는 뜻깊은 자리

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는 오전 11시 풍산마당에서 참가 등록과 캠퍼스 투어로 시작되며, 버들골에서는 재학생 동아리 활동 체험 등 식전 행사가 마련된다. 오후 1시부터는 풍산마당에서 개회식과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이 이어지고, 입학·졸업 10·20·30·40·50·60주년을 맞은 동문들을 위한 기념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10월 20일 저녁에는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특별히 미주동문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멀리서 찾아온 동문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전한다. 이후 10월 21일(화)부터 25일(토)까지는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가 정성껏 준비한 제주 4박5일 모국여행

이 펼쳐진다. 이번 여정은 바쁘게 이동하는 관광이 아니라, 제주의 풍경을 차분히 음미하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힐링 여행으로 기획되었다. 첫날인 21일에는 제주에 도착해 애월과 각지 해변을 거닐며 여행의 문을 연다. 이튿날인 22일에는 가파도의 고즈넉한 풍경과 송악산·용머리 해안을 돌아보고, 설록차 티 뮤지엄에서 차향기 속에 잠시 머문다. 23일에는 성산일출봉과 산굼부리 역사발을 탐방한 뒤,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김녕해안 전망 카페에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긴다. 24일에는 천지연 폭포와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고, 족욕 체험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며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주돌문화공원 하늘연못정원을 거닐며 여정을 마무리한다. 여행 비용은 1,309달러(김포-제주 항공권 포함)이며, 숙박은 제주시 부영호텔(또는 동급)에서 전 일정 함께한다. 미주동창회 관계자는 “서울대 종합화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에 동문들이 다시 모교를 찾게 되어 감회가 크다”며 “김종섭 총동창회장님의 만찬 초청과 제주 여행까지 더해져 동문 간의 교류와 우정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미주동창회 총무국(612-280-7589, 이메일 contact@snuaa.org)으로 하면 된다. (여행 주관사 아주투어: 213-388-4000)

미주동창회 장학생 모집

내년 여름 서울대 국제하계강좌 참가
10명 선발, 수업료 포함 1만불 지원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가 내년 여름 열리는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International Summer Program, 이하 SNU ISP)에 참가할 장학생을 모집한다.

SNU ISP는 전 세계 학부생을 초청해 5주간 진행하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AI 공학부터 한국문화까지 30개 이상의 강좌 중에서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면서 근래들어 글로벌 열풍

이 불고 있는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선발 장학생은 모두 10명이며, 장학금은 1만 달러다. 미주동창회가 서울대에 SNU ISP의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지급하고, 약 5000달러에 달하는 잔여 금액은 학생에게 전한다. 지원 자격은 2025년 10월 1일 기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한홍택(공대 60·UCLA 석좌교수) 장학위원장은 “학업 성취도, 창의성, 지도력 등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서울대 동문으로 교류하고 미국 사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 이 장학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이며, 미주동창회 온라인 포털(https://snuaa.org)을 통해 지원서와 대학 성적증명서,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미래 목표를 담은 500자 에세이, 추천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선발 결과는 2026년 1월 15일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추가 정보는 scholarship@snuaa.org로 문의하면 된다. <관계기사=3면>

미주동창회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51-308-0796 | Email: contact@snuaa.org

동창회보 구독자님들께서 동문 지인 중 아직 동창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께 다음 달 동창회보를 보내드리고 싶은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메일(contact@snuaa.org) 또는 미주동창회 주소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미주동창회 첫 지부 회장 줌 미팅 ... 15개 지부 참여

지부 현황 분석, 젊은 동문 영입 해법 등 모색
 “역시 젊은 동문!” 총무국장 PPT에 탄성 절로

미주 각 지부 서울대 동창회장이 참여하는 줌 미팅이 지난 8월 13일 오후 6시(서부시간)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 주최로 열렸다. 이날 줌 미팅에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산하 29개 지부 중 15개 지부 회장이 참석해 미주동창회 사상 처음으로 열린 지부 회장 줌 미팅에 대한 동문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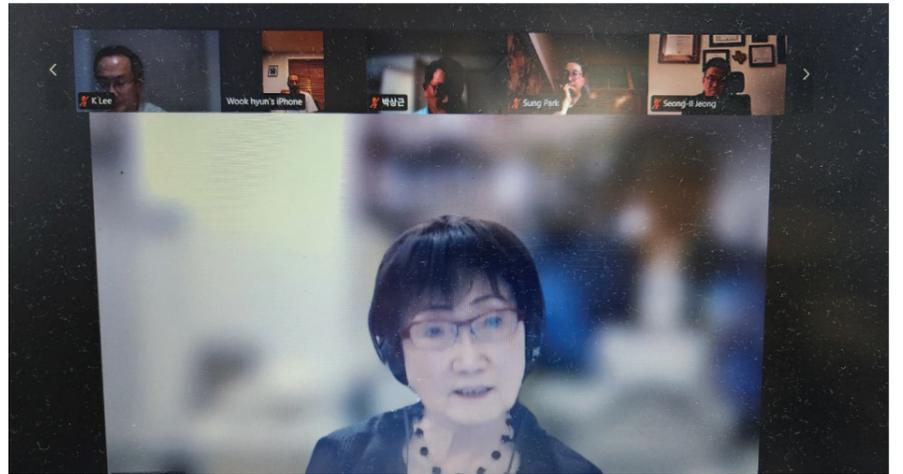
줌 미팅에 참석한 지부 회장은 다음과 같다.

- ▶ 남가주 채규환(법대 69) ▶ 뉴욕 김병순(경제학과 82) ▶ 워싱턴DC 남욱현(경영대 84) ▶ 시카고 정성일(공대 86) ▶ 필라델피아 김영석(음대 74) ▶ 뉴잉글랜드 워덕수(공대 건축학과 72) ▶ 조지아 최화진(음대 85) ▶ 워싱턴주 이정관(농대 83) ▶ 미네소타 문성인(공대 88) ▶ 미시간 이광진(공대 81) ▶ 커네티컷 박성훈(자연대 91) ▶ 텍사스 휴스턴 김정환(공대 80) ▶ 캐롤라이나 정신호(자연대 78) ▶ 오하이오 이성우(상대 72) ▶ 하와이 전수

진(식품생명공학 89) 회장 대행 미주동창회에서는 황효숙 회장과 박상근 차기 회장, 박현아 사무총장과 임동근 총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문성인 미네소타 지부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줌 미팅에서는 지부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워싱턴DC 지부의 젊은 동문을 위한 활동 사례 보고가 있었다. 이어 모든 동창회의 최대 과제인 젊은 동문 영입 방안을 두고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임동근(농생대 대학원 14) 총무국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슬라이드로 요약 정리해 “역시 젊은 동문이 참여해야 동창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는 탄성을 이끌어냈다. 미팅 후 지부 회장들은 앞다퉀 프리젠테이션 자료 공유를 요청했다.

남욱현 워싱턴DC 회장은 젊은 동문 활동 사례 보고를 통해 “모임이 지속되려면 재미가 있거나 도움이 돼야 한다”며 관심사를 반영한 동호회 활



지난 8월 13일 열린 미주동창회 지부 회장 줌 미팅에서 황효숙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성화, 선배들의 재정 지원, 링크드인과 같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동문 파악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 남는데 이들이 미래의 동창회원인 만큼 학생 모임 지원과 각 분야 서울대 인맥을 통한 커리어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효숙 회장은 “지속가능한 동창회를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가능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며 “지부가 젊은 동문 참여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면 미주동창회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현아(공대 88) 사무총장은 “동창회보 1면 QR코드를 활용하면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는 동문들에게도 회보를 보내줄 수 있다”며 “지부 동문들에게 QR 코드 이용을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주 지부 회장 줌 미팅은 분기별로 열리며 다음 모임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각 지부현황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 연혁**
 - 70-80년대 주요 지부 설립
 - 꾸준한 신규 지부 설립
 - 설립 목적 분석으로 미주 곳곳의 동문 니즈를 종합적으로 파악 가능
- 인원 수 및 구성**
 - 전체 동문 수 약 8,400명 *지부 등록 인원 기준
 - 인원 수 상위 6개 지부가 전체 인원의 약 75% 차지
 - 행사별로 변동 있지만 참여율 약 20%
 - OB:YM = 2:1 *지부별 기준 상이: 입학연도 vs. 특정연도
- 재정 및 회비**
 - 지부 재정은 주로 이사회비, 연회비, 기부금으로 구성
 - OB 이사회비가 재정에서 큰 비중 차지
 - 대규모 행사의 경우 참가비 존재 e.g., 연말총회, 골프대회 등
- 장학사업 및 젊은 동문 모임**
 - 대부분 지부가 1인당 연 \$1,000-\$3,000 규모의 장학사업 진행
 - 별도 젊은 동문 모임이 있는 지부 상당 수

- 1970년대 주요 지부가 처음 설립된 이후, 지부 수는 지난 50년간 꾸준히 증가
 - 지부의 지속적 설립은 미주 동문들의 지역적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

지부 설립연도

| 1970s | 1980s |
|--|--|
| 북가주 (1972), 남가주 (1974), 필라델피아 (1977) | 북텍사스 (1983) |
| 샌디에고 (1971), 워싱턴주 (1972), 뉴욕 (1977) | 시카고 (1982), 휴스턴 (1984), 조지아 (1989) |
| 1990s | 2000s- |
| 미네소타 (1994), 하트랜드 (1997), 뉴잉글랜드 (1997) | 오하이오 (2002), 커네티컷 (2016), 미시건 (2022), 중부텍사스 (2012) |

Unconfirmed (10 chapters): 워싱턴DC (1970s),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하와이, 오레곤, 록키마운틴즈, 애리조나, 테네시, 유타, 알래스카

- 1970년대 주요 지부가 처음 설립된 이후, 지부 수는 지난 50년간 꾸준히 증가
 - 지부의 지속적 설립은 미주 동문들의 지역적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

지부별 인원 구성

| | |
|--------|------|
| 미시간 | 1.9% |
| 워싱턴주 | 1.8% |
| 조지아 | 1.8% |
| 샌디에고 | 1.4% |
| 플로리다 | 1.4% |
| 필라델피아 | 1.3% |
| 휴스턴 | 1.3% |
| 오하이오 | 1.2% |
| 미네소타 | 1.1% |
| 텍사스* | 1.0% |
| 캐롤라이나 | 1.0% |
| 하와이 | 0.7% |
| 오레곤 | 0.6% |
| 록키마운틴즈 | 0.6% |
| 하트랜드 | 0.6% |
| 커네티컷 | 0.6% |
| 아리조나 | 0.4% |
| 테네시 | 0.3% |
| 유타 | 0.2% |
| 알래스카 | 0.1% |

※ 텍사스=북텍사스+중부텍사스

※ 미주 동문 총 8,409명 기준 (설문결과 우선 + 미주동창회 명부)
 ※ 설문 미응답 지부 인원은 미주동창회 명부를 근거로 작성되었음
 - 인원 수 기준 상위 12개 지부는 설문 값으로, 나머지 지부에 어떤 근거를 적용하더라도 비중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캐나다 2개 지부를 제외한 27개 지부의 총 동문 수는 8,509명 (설문조사 파악 인원 우선 적용한 후, 미응답 지부의 경우 미주동창회 동문 리스트에서 보충)
 - 인원 수 상위 6개 지부가 전체 동문의 81.9% 차지

파악인원 vs. 참석인원

| | | |
|--------|-----------------|----------------------|
| 남가주 | 350-700명 (참석인원) | 3,500-700명 (전체 파악인원) |
| 워싱턴 DC | 150 | 1,000 (1,000명 이상) |
| 뉴욕 | 30-130 | 710 |
| 뉴잉글랜드 | 150 | 500-600 |
| 북가주 | 70-100 | 500 |
| 시카고 | 80-120 | 482 |
| 미시건 | 30-40 | 160 |
| 워싱턴 | 60-80 | 155 |
| 조지아 | 60-80 | 150 |
| 샌디에고 | 35 | 120 |
| 필라델피아 | 50 | 110 |
| 휴스턴 | 25 | 109 |
| 미네소타 | 20-40 | 92 |
| 하트랜드 | 15-20 | 49 |
| 커네티컷 | 10-20 | 49 |

※ 위에서부터 동문 수가 많은 지부 순임
 ※ 설문 응답 지부 중 전체인원 및 모임 참석인원이 확인된 경우만 제시함

300-1,000명, 100-300명, 100명 미만

- 행사의 규모나 특징별로 참석자 수 변동이 크긴 하나, 대체로 20% 정도의 행사 참가율 보임

“당신의 이름으로, 서울대 새싹을 미국 사회 리더로”

서울대 미주동창회 장학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제 16대 노명호 미주총동창회장 때 처음 시작됐다. 미 전역의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선발해 미주 한인사회 장학금으로는 최대 금액인 1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2023년에는 미국 명문대생 110명이 지원해 11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일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미주동창회 장학 프로그램은 일반 장학금과 기부자의 이름으로 주는 ‘지명 장학금제’로 운영된다. 미주동창회 장학금 외에 한홍택 장학위원장이 부인 백훈(미대 61) 동문과 함께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어 미시간주의 고광국(공대 54) 고국화(공대 56) 동문 부부, 2022년 말 타계한 고 유시영 동문의 부인 유은주 여사, 그리고 한국 총동창회장인 김종섭 회장이 대표로 있는 삼익약기 미주법인이 그동안 1만 달러씩을 보냈다.

지난해에는 노명호 전 미주동창회장과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자신의 이름으로 1만달러 지명 장학금 대열에 합류했다.

올해는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이 지명 장학금으로 1만 달러를 기부했다.

미주동창회 장학생, 서울대 국제 하계강좌 참여

모교 · 미주동창회 윈윈 전략적 파트너십 기대

지명장학금 참여하면 동창회가 절차 · 기금 관리

한홍택 장학위원장은 “미주동창회 장학금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 지명 장학금이 많아져야 한다”면서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지원서를 받아 심사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고 작은 돈으로 시작하기도 뭣해 주저하는 동문들이 적지 않은데 미주동창회가 복잡한 절차를 대신하고 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만큼 많은 동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지명장학금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특히나 올해부터는 장학생들이 서울대에 가서 공부하면서 서울대인 한가족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면서 “일회성 지원을 넘어 후원자와 장학생이 교류하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미주동창회는 장학생 10명을 선발해 내년 여름 5주간 진행되는 서울대 국제하계강좌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은 미주동창회로

서는 장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서울대 일원으로 유대감을 갖고 서울대 출신 미국 사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모교로서는 미국 최고 명문대에 다니는 인재 유치를 통해 서울대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미주동창회와 모교가 맺은 전략적 ‘윈윈’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세인트폴 평의원회의에 참석한 유홍림 총장은 미주동창회에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다.



2024년 서울대 국제하계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국 문화 체험으로 경복궁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각 지부현황

프리젠테이션=임동근 (농생대 대학원 14) 총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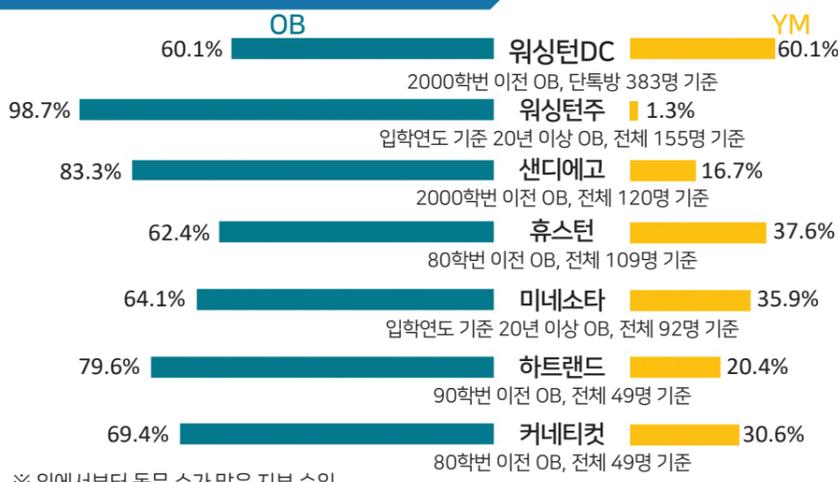
젊은 동문을 위한 모임 여부

| 지부명 | 운영여부 | 운영방식 | 기타 (상세 내용) |
|-------|------|--------------------------------|------------------------------|
| 남가주 | Y | 관악세대 Alumni Gala Kick off 2026 | 11월, 모임 준비를 위한 회의 개최 예정 |
| 워싱턴DC | Y | 샤로수 단톡방, 동호회 모임 | 테니스 동호회에 샤로수 단톡방이 주축 |
| 뉴욕 | Y | 관악클럽 | |
| 북가주 | Y | 맥주모임, 페이스북 | 동문회와 별도로 운영 |
| 시카고 | Y | 관악클럽 | 가족 포함 분기별 1회 모임 (골든클럽만큼 활발X) |
| 미시간 | N | | |
| 워싱턴 | N | | |
| 조지아 | Y | 관악모임 | 40명 정도 참석 |
| 샌디에고 | Y | 저녁모임 | |
| 필라델피아 | Y | 관악세대 모임 | 연간 3-4회 |
| 휴스턴 | Y | | |
| 미네소타 | N | | |
| 케네디 | N | | 참여율 저조 |
| 하트랜드 | Y | 클럽 9000 (90년대 + 2000년대 학번) | |

※ 위에서부터 동문 수가 많은 지부 순임

- 설문 응답 15개 지부 중 60%인 9개 지부에서 젊은 동문을 위한 모임 운영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참석인원이 일정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된 경우)
- 젊은 동문 모임이 활발한 곳은 대체로 동문 수 자체가 많은 지부(남가주, DC, 뉴욕...)

OB/YM 구분 및 이사회비



※ 위에서부터 동문 수가 많은 지부 순임
※ 설문 응답 지부 중 OB/YM 인원비가 확인된 경우만 제시함

- OB와 YM 인원비는 평균적으로 2:1
- 지부별로 OB와 YM을 구분하는 기준에는 차이 있음(입학연도 vs. 특정연도)

OB/YM 구분 및 이사회비

| 지부명 | 이사회비 | 연회비 | 정기모임 |
|-------|-----------|-------|---|
| 남가주 | \$100-300 | \$50 | 정기총회(\$50), 골프대회(\$120), Hollywood Bowl 가족의 밤(\$60), 야유회, 신년음악회 |
| 워싱턴DC | \$250 | \$50 | 설날모임, 춘·추계 피크닉, 골프대회(\$150), 연말파티(\$150) |
| 뉴욕 | \$200 | \$50 | 봄·가을 야유회, 연말총회(\$120), 봄·가을 골프대회(\$120) |
| 북가주 | - | - | 야유회, 송년파티, 골프대회, 음대 동문 음악회 (모두 참가비 0) |
| 시카고 | \$250 | \$50 | 이사회(상·하반기), 봄야유회, 춘·추계 골프대회(\$120), 가을음악회(\$30), 연말파티(\$40) |
| 미시간 | \$300 | - | 설날행사, 여름총회 및 피크닉, 가을골프, 기타 이벤트성 행사 (모두 \$20-\$30) |
| 워싱턴 | - | \$100 | 2월 신년 하례회, 8월 하계 피크닉, 12월 송년회 |
| 조지아 | - | \$150 | 야유회, 송년회(\$100) |
| 샌디에고 | \$150 | \$90 | |
| 필라델피아 | - | \$100 | 정기총회(\$50), 연말파티(\$50), 봄·가을 골프대회(\$100) |
| 휴스턴 | \$300 | - | 연말모임만 운영 (Covid-19 이전 봄소풍 및 가을음악회 진행) |
| 미네소타 | \$200 | - | 연말총회 \$30 (학생무료) |
| 케네디 | - | - | 여름 모임, 겨울 모임(음식점, 식비 각자 부담) |
| 하트랜드 | - | \$75 | 봄 피크닉, 가을 정기총회 및 골프대회, 송년회 |

※ 위에서부터 동문 수가 많은 지부 순임
※ 하이픈(-)은 이사회비/연회비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 대부분 지부는 연 \$200-\$300 사이의 이사회비 또는 연회비로 재정의 상당 부분 충당
- 정기모임시 그때그때 참가비 등을 모집 (정기총회나 연말총회 시에는 대부분 등록비 받음)

장학사업 진행여부

| 지부명 | 1인당 장학금액 | 수여인원(연간) | 기타 (상세 내용) |
|-------|----------|----------|---|
| 남가주 | \$1,000 | 3-5명 | |
| 워싱턴DC | \$1,000 | 5명 | 2022년 한미장학재단에 \$30,000 기부 (재단 \$30,000 매칭펀드와 함께 지정장학금 구성) |
| 뉴욕 | \$3,000 | 5-10명 | |
| 북가주 | 0 | 0 | 동문 유학생, 지역 고등학생·대학생(동문 무관), 비정기적 장학금(백일장 등) |
| 시카고 | \$3,000 | 7-10명 | 1986년부터 장학사업 시작 |
| 미시간 | \$2,000 | 5명 | 고광국·고국화 박사님 장학금 |
| 워싱턴 | \$1,000 | 5-8명 | 일반 장학생 3-6명, UW 한국어학과 장학생 2명 |
| 조지아 | 미운영 | 미운영 | |
| 샌디에고 | \$1,000 | 1-2명 | |
| 필라델피아 | \$1,000 | 2명 | |
| 휴스턴 | \$1,500 | 10-12명 | |
| 미네소타 | \$1,000 | 3-5명 | |
| 케네디 | 0 | 0 | 고 유시영 동문 장학금, 2024년부터 매년 1명씩 동문 자녀 및 동문 지원 |
| 하트랜드 | \$1,000 | 2-3명 | |

※ 위에서부터 동문 수가 많은 지부 순임
※ '0' 표시는 장학사업 진행 중이나 장학금액 또는 수여인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 대부분 지부는 개인당 연 \$1,000-\$3,000 수준의 장학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
- 장학사업명과 진행 프로세스는 지부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운영되고 있음

6.25 전사자 이름으로 고향 초등학교에 도서관 세우기 구창화 동문, 미국 50개 주 5년 대장정 마무리

지난 8월 15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서쪽 스페나드에 위치한 학생 수 280명의 노스우드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다. 이곳에서 태어나 1953년 2월 27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당시 20세의 존 바이런 휘트슨 주니어 이등병을 포함, 알래스카 출신 10명의 6·25 전쟁 전사자를 기리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버몬트에 사는 구창화(미대 65·결혼전 이름 김창화) 동문과 남편 구성열씨의 노력으로 성사됐다. 부부는 5년 전부터 미국 전역을 돌며 전사자의 고향 초등학교에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전달하고, 5000여 달러를 기부해 학교 도서관을 전사자 이름으로 명명하는 일을 이어왔다. 49개 주, 51개 학교를 방문하는 대장정 끝에 이날 마지막 남은 알래스카주의 초등학교를 찾은 것이다.

구창화 동문 부부는 약 100명의 학생이 모인 행사에서 한국전쟁의 발단과 참혹한 피해, 그리고 수십만 명의 미군이 전사·부상·실종된 사실을 설명한 뒤, 전사자 기념 명패와 도서관 사업을 위한 5033달러 기부금을 전달했다. 엘리자베스 혼버클 교장은 “이번 추모식을 통해 타인을 돕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이야기를 알게 돼 영광이었다”고 화답했다.

구창화 동문의 일명 ‘땡큐 아메리카(Thank America)’ 프로젝트 마지막 여정은 주요 기부자 중 한 명인 유명 프로골퍼 김인경씨도 함께했다. 구 동문이 알래스카주 학교와 접촉한 것은 2년 전이었다. 전사자 10명 중 3명이 원주민이어서 처음에는 원주민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에 취지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사기성으로 오해받아 끊기기 수차례. 뒤늦게 취지를 이해한 학교는 원로회의를 거쳐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그 전사자는 우리 부족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후 발디즈, 주노, 프린스 오브 웨일즈, 애넷섬 등지의 학교를 거치며 비슷한 과정을 반복하다가, 앵커리지 교육구의 협조로 학교를 선정하고 일정을 확정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알래스카만의 일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교장은 기부 소식을 반겼지만, 액수가 큰 기부금은 교육구의 승인이 필요해 취지를 설명하는 편지와 자료를 다시 교육구에 보내야 했고,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1년이 걸렸다.

구창화 동문은 “긴 기다림 끝에 학교로부터 확답을 받으면 너무 좋아서 만사 제쳐놓고 기념 명패와 학생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곧바로 먼 길을 달려갔다”며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미국 대륙을 종횡으로 오가며 7만 마일을 달렸다”고 전했다.

어렵게 찾아가한 학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금’과 더불어 70여 년 전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의 희생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고 학교는 교실에서 배우기 힘든 ‘도움 줄 알고, 도움을 잊지 않



구창화 동문(오른쪽)이 노스우드 초등학교 엘리자베스 혼버클 교장에게 알래스카 출신 전사자 10명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패를 전하고 있다.

8월 15일 광복절, 알래스카 초등학교 방문 추모식
전사자 10명 기리는 명패 · 기부금 5033달러 전달
한국전서 숨진 미군 3만6940명 · 실종자 7천여명
한 명 한 명 출생지 학교 · 전사 경위 · 유족 찾아보고
20세 옛된 나이에 안타깝게 숨진 시골 출신 선정
도움 필요한 낙후된 고향 학교에 기부로 감사 전달

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산교육이 됐다며 감사 인사로 답했다.

구창화 동문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미국 여행 중 마을마다 자리한 ‘한국전쟁 기념비’를 보면서였다. “작은 시골 마을에도 한국전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파병되었을 텐데, 그 젊은 나이에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니... 그 희생에 대해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이 가장 의미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의 이름으로 고향 도서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 동문이 기부한 전사자의 평균 나

이는 21세였다. 고향 가족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잊혀진 죽음’이었다.

미군은 6·25 전쟁에 유엔 연합군으로 참전해 3만6940여 명이 전사하고 9만여 명이 부상했으며, 7000여 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로 남아 있다.

한국인은 물론, 미국인 가운데에서도 한국전 전사자 3만6940명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고, 출생지와 전사 경위를 찾아낸 이는 아마도 구 동문의 남편 구성열씨가 유일할 것이다. 그는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미국으로 건너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했으며,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씨의 부인 구순열씨의 오빠다.

전사자들의 이야기는 다양했다. 미시간주의 해롤드 크로스 중사는 휴전일인 1953년 7월 27일 25세의 나이로 숨져, 미 육군 중 가장 마지막에 전사한 군인으로 기록됐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케네스 세드릭 일병은 1950년 7월 5일, 19세 나이로 가장 먼저 전사했다.

구 동문이 2020년 10월 처음으로 5000달러를 기부한 학교는 버몬트주 베닝턴 카운티의 리스보로 초등학교였다. “이곳 출신 리처드 볼로냐니 상병은 1952년 8월 18일 강원도에서 강을 건너다 익사했는데 당시 31명이 함께 익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며 “고향에 살던 형 마리오가 동생 이름으로 기념 도서관이 생긴 소식을 듣고 크게 감격했지만, 곧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마음을 울리는 전사자를 정해 그의 고향을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면, 두 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기부할 초등학교를 선정해 승인을 받는 일이었다. 학교 선정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시골에 위치한 낙후된 학교, 도움이 필요한 학교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와이오밍주의 시골 마을 케이시에는 2021년 5월 마을에서 유일한 학교 도서관이 생겼다. 구 동문 부부가 이곳 출신 드래레 커틀리 상병의 이름으로 5000달러를 기부해 만든 도서관이다. 구 동문은 당초 목표했던 50개 주 방문을 마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다.

“전사자와 모교를 조사하고 기금을 모으며 유족을 찾아 초청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사업을 하면서도 틈날 때마다 프로젝트에 매달렸어요.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여정이었지만 빛바랜 70여년 전 사진을 들고 찾아온 유족들이 울며 감사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도서관 지원을 받은 마을들은 대체로 시골 지역이라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부 활동을 통해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됐다”며 “작은 외교를 했다고 자부하는데 이미 유대 관계를 맺은 학교들이니,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창화 동문 부부는 2018년부터 매년 6월 25일 ‘리버티 워크(the libertywalk.org)’ 행사를 열어왔다. 1마일 걸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행사로, 부부가 운영하는 재단(625foundation.org)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뿐 아니라 “이날 하루만이라도 함께 걸으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구창화 동문과 남편 구성열, 프로골퍼 김인경씨가 노스우드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추억의 서울대 사진전

신문 호외로 실린 1965년 서울대 전체 합격자 명단

“잠시나마 옛시절을 떠올리며 미소지을 수 있는 서울대의 추억이 담긴 동문 사진을 모집합니다.” 동창회보 8월호에 이런 광고를 냈는데 플로리다 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윤기향(법대 65) 동문이 1965년 서울대학교 합격자 명단이 실린 한국일보 호외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1965년 2월14일 발행됐습니다.

1980년대 한국 민주화와 인권 운동의 상징이었던 고 조영래(1990년 별세) 인권 변호사가 그해 서울대 전체 수석을 해 얼굴 사진까지 실렸네요. 윤기향 동문은 이 사진을 보내면서 “서울대학교 합격자 명단이 호외로 발간되어 집집마다 배달되고 가관으로 팔렸던 시대가 있었다”며 “지금 AI 시대라

면 그때는 가히 석기시대라고 할 만 하다”고 전했습니다.

윤기향 동문은 이어 “그해 6월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굴욕적인 협정이라는 이유로 문리대와 법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대와 저항이 격렬했고 전체 수석자인 고 조영래 변호사가 앞장 서서 데모를 주도했었다”며 “캠퍼스를 나와서 몇발자국 못가서 저지당하던지 아니면 종로 5가에 못미처 봉쇄되기 일쑤였는데 학창시절의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말했습니다.

‘추억의 서울대 사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동문들과 함께 추억하고 싶은 사진을 갖고 계시면 동문 이름과 학번, 간략한 설명을 담아 미주동창회(contact@snuaa.org)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대 큰 스승’ 흥여신 교수님,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삶의 멘토이자 어머니 같으셨던 은사

LA방문에 간호대 동문 30여명 한자리

한국에서 LA를 방문하신 흥여신 은사님을 환영하는 자리가 지난 8월 16일 LA 한인타운의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호대 동문 30여 명이 함께 모여 오랜만에 스승님을 뵙고 정겨운 시간을 나누었다.

흥여신 선생님은 6.25 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 서울대 부속 간호학교에 입학하셨다. 1958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미하여 간호교육을 이수하셨고, 1961년 귀국해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재직하셨다. 이어 1969년 미네소타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1975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다. 이후 간호대 학장으로서 간호대학의 발전은 물론 간호사 양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다.

나는 1961년에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서툰 대학 생활과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기초간호학 시간에 만나 뵈신 선생님은 자그마한 체구에 조용조용 말씀하



흥여신 교수

셨지만, 강의 내용은 알차고 차분하며 지적이었다. 당시 미혼이셨던 선생님은 학생 기숙사 사감을 맡으셔서 우리의 생활을 세심히 살피주셨다. 상담자 같으면서도 푸근하게 보살피주시는 어머니 같으셨다. 잘못이 있으면 따끔히 야단치셨지만, 끝은 언제나 사랑과 이해로 감싸주셨다.

언성을 높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고, 늘 학생들을 품어주셨다. 선생님의 고매한 인품이 신앙심 깊으셨던 아버님의 훌륭한 교육에서 비롯된 것임을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지난 8월 16일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 주관으로 열린 흥여신 교수 LA 방문 환영 모임. 30여 동문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대학 4년, 그리고 졸업 후에도 이어진 기숙사 생활과 사제 관계 속에서 선생님은 아낌없는 사랑과 큰 가르침을 주셨다.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학문적 지도와 인생의 교훈을 떠올리면, 그 시절은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나날이었다. 성심과 열정을 다해 가르쳐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남편과 나를 이어주신 소중한 인연도 있다. 그 후로도 선생님은 내 삶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셨고 지금까지도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격동기를 살아오시며 한국 간호교육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선생님은 간호대학 발전의 산 증인이시다. 모교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열정으로 일구신 업적에 동문 모두를 대표해 다함없는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글=방정자(간호대 61)



관악캠퍼스 종합화 50주년 기념 공대 혁신 동문 50인 추천 받아요

공과대학(학장 김영오)은 관악캠퍼스 종합화 50주년을 기념해 관악이 배출한 서울 공대 혁신 동문 50인을 추천받고 있다.

공대 측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사회 혁신을 선도해 온 자랑스러운 동문을 발굴·조명함으로써, 공학인의 위상을 높이고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상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후보자 자격은 1975년 이후 서울대 공대에 입학한 동문이며 사회 각 분야에서 기술혁신, 사회영향, 미래가치에 기여한 동문이다.

추천은 개인 및 기관 단체의 대표가 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은 9월 15일까지다. 수상자는 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대 홈페이지(mysnu.org) 참조.

▶문의 : 880-7005

오세경(약대 61) 동문, 골드 이사 합류 ... 3000달러 일반 후원도

지난해 서울대 발전기금 100만 달러 완납

미주동창회 후원으로 모교 사랑 이어가

뉴잉글랜드 지부의 오세경(약대 61) 동문이 서울대 미주동창회 재정 자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 센추리 펀드에 1만 달러를 후원해 골드 이사 대열에 합류했다. 오세경 동문은 이달 초 황효숙 회장이 이끄는 18대 미주동창회에 1만 달러를 보내면서 기존 종신이사(3000달러 후원)에서 골드 이사로 업그레이드했으며 3000달러는 미주동창회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일반 후원금으로 써달라고 밝혔다.

오세경 동문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발전기금 100만 달러 기증을 완납한

데 이어 서울대 미주동창회에도 1만 달러를 후원하면서 남다른 모교 사랑과 동문애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오세경 동문의 모교 사랑은 서울대 재학 시절 받았던 함춘원 장학금과 5.16 장학금에 대한 고마움을 나눔과 베품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실천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모교는 2019년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 동문에게 서울대 발전공로상을 수여했으며 약대는 '자랑스런 약대인상'을 안겨 줬다.

보스턴 의대 미생물 학과 부교수를



거쳐 보스턴 암연구회 회장과 MIT 교수를 역임한 오 동문은 c-Troponin-I 라는 심근경색 진단 시약을 의학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약은 심근경색의 진단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온 시약으로 1998년부터 시판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보급돼 쓰이고 있다.

오 동문의 남편은 구강 질병의 최고

권위자로 40년 넘게 하버드대 치대 학장을 지내며 숭한 제자를 길러내 미국 치의학회로부터 평생공로상을 받은 고 제럴드 슈클라 박사다. 2015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오 동문은 하버드 치과대학에 Shklar Award 를 설립해 음악, 미술에 특출한 재능을 보인 치과대학생, 의료봉사를 가장 많이 한 학생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오 동문은 한국 학생들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하버드대 대신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의학과 자연과학은 물론 1500년대를 비롯해 1600년대, 1700년대 유럽 지성사를 보여주는 인문, 예술, 미술, 건축, 악보 등 1793권에 달하는 소장 저서를 기증해 현재 '슈클라 문고'로 특별 관리되고 있다.

세대와 거리를 넘어 ... '선후배의 대화' 함께 하세요

세대 차이와 물리적 거리의 장벽을 넘어 여러 전문분야별로 미주 동문 선배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동문들의 에너지 및 신기술과 만나 즐겁고 유익하게 대화하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흥미롭고 중요한 과제들을 함께 생각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미주 동창회가 동문들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수직적인 멘토링 보다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선배님들의 연륜과 젊은이들의 열정 및 신기술 습득력이 수평적으로 만나 즐겁게 부담없이 교류하고 대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시애틀 김재훈 · 미네소타 이수정 동문 첫 만남

젊은 동문들 위한 새로운 멘토링의 장 마련해

저희가 첫번째로 선정한 팀은 항공 분야입니다. 워싱턴주에서 항공 분야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사회 봉사 경험을 가지신 공대 72학번 김재훈 선배께서 미네소타 대학원생 기계항공 13학번 이수정 후배와 미주동창회의 소개로 7월 29일 온라인으로 만나 대화하신 후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첫 줌미팅을 통해 긴 시간 얘기를 해 보니 준비해온 질문을 통해 선배의 경

험을 배우려는 의지가 충만하고 미래를 위한 자기 개발에 열성으로 대화를 하다보니 어떻게 두 시간이 쏙살같이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미주동창회는 전공은 유사하지만 소속 지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알기 어려운 선후배님들을 분야별로 서로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참가 신청을 받은 후, 각 팀이 대화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동창회보에 칼럼으로 게재하

고 칼럼이 열 편 정도 모일 경우 독자 투표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팀을 선정하여, 후배가 선배님을 직접 찾아뵙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여행 경비를 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 중입니다. 여러 동문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및 후원:미주동창회가 새롭게 시도하는 "선후배의 대화"에 각 전문 분야 선배 또는 후배 역할로 참가를 희망하거나 상금을 후원하고자 하는 동문님들께서는 미주동창회(651-308-0796 / contact@snuua.org)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아(공대 88) 미주동창회 사무총장

"섬기는 리더십으로 버팀목 되는 동창회 만들겠다"

제 18대 황효숙 미주동창회장단 회식

향후 운영 방향과 실행 방안 등 논의

제 18대 미주동창회 회장단(회장 황효숙)은 지난 7월31일, 미네소타 North Oaks 소재 Tria Restaurant 에서 회식자리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송창원, 주한수, 문성인 고문님들, 김영석 감사님을 비롯해 박현아 사무총장, 손창수 재무국장, 임동근 총무국장, 변정민 Brain Network 국장과 미주동창회보 편집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오은아 편집 디자이너 등 핵심 멤버들이 참석했다.

황효숙 회장은 지난 6월 평의회를 성황리에 마침을 축하하며 모든 임원들의 지대한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훈훈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과 미모사를 나누며 지속 가능한 동문회를 위한 향후 운영방향과 실행전략 및 지부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젊은 동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실제적 프로그램 등이 논의되었다.

이 모임을 위해 15대 신응남 회장은 따뜻한 축하인사와 나태주 시인의 시 "서로가 꽃"이라는 시를 전하며 18대 회장단의 출범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임동근 총무국장이 낭독한 시의 잔잔한 울림은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리더십의 본질은 '섬김'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바탕으로 미주동창회가 동문들과 더 가까이 연결되고 실질적인 도움과 연대를 강화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황효숙 회장은 "동문 한사람 한사람에게 힘이 되고 마음의 지주가 되는 미주동창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장단은 이를 바탕으로 세대간 소통과 참여확대를 위한 실천방안들을 함께 모색했다.

박현아 사무총장은 젊은 동문들의



황효숙 회장과 박현아 사무총장, 송창원, 문성인 고문 등 제18대 미주동창회 회장단이 지난 7월 31일 미네소타 North Oaks에 있는 식당에 모여 향후 미주동창회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미주에 새롭게 정착한 젊은 동문들이 동창회를 실질적인 성장의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관심분야를 기반으로 한 "선후배의 대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인 지부지원담당 고문은 미주동창회의 역사와 현황을 되짚으며 "지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되 미주동창회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부의 활동과 과제를 공유하며 지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 이 모아졌다.

제18대 회장단은 앞으로도 섬기는 리더십의 정신아래 "서로가 꽃이 되는 공동체"라는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날의 모임을 마무리 했다. **취재=임동근(농생대 대학원 14)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송창원(문리대 화학53) 미주동창회 상임고문, 종신이사 가입 방사선 암 치료에 큰 족적 ... “93세인 지금도 논문 씁니다”

미네소타 동창회의 큰 어른으로 제18대 미주동창회에서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송창원(문리대 화학과 53) 미네소타대 명예교수가 황효숙 미주동창회 회장단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며 종신이사에 가입했다. 송창원 박사는 1968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해 세계 과학계의 주목을 받은 이래 지금까지 300여편에 가까운 논문을 발표하며 방사선 암 치료와 암 온열치료 연구에 크게 공헌했다. 그의 연구는 현대 암 치료의 핵심 기법으로 자리잡았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대한민국 호국 영웅 기장을 받았다. 93세인 지금도 논문을 쓰며 연구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는 송창원 박사를 한국의 총동창회가 발행하는 ‘서울대 총동창신문’에서 인터뷰에서 특집 기사로 실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보통 날은 아침 6~7시에 기상하고 밤 12~1시에 취침합니다. 학교 연구실은 아직 유지하고 있으나 일은 대부분 집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실험은 직접 하지 않고 미국이나 한국의 옛 제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실험이 있으면 그들에게 부탁하고 얻은 결과를 가지고 같이 논문을 씁니다. 논문 한 편이 곧 발표될 예정이고 또 하나의 논문이 금년 내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건강 비결이 궁금합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물에 10~15분간 전신을 담급니다. 혈류 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이후 야채주스를 직접 갈아 마시고요. 여름에는 골프를 1주에 2~3회 치고 겨울에는 1주에 4~5일 6000보를 실내에서 걷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가정의 행복을 소홀하지 않으면서 학문연구에 몰두한 것입니다. 연구와 가정생활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지요. 그 대신 저, 개인을 위한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을 삼갔어요. 골프도 아이들이 다 성장한 후에 아내와 시작했지요.”

그의 몸에는 6.25전쟁 당시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포탄의 파편을 맞고 허리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은 건졌다. 군의관은 수술을 포기했다. 파편이 척추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70년 넘게 그는 그 파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면 파편이 X선에 포착돼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해 소위 임관까지 했습니다. 그 시절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매 순간을 살았습니다. 현리전투에서 적과 마주쳐 기관총 병커를 공격하다 주위의 부하들이 쓰러지고 저도 부상 당한 전투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최근 여러 나라의 전쟁을 보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일선 병사의 입장에 선다면 그렇게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명 역시 귀중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상이군인으로 제대한 그는 산골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과학자의 꿈은 포기하지 않았다. 독학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당시 실험실은 텅 비어 있었고, 필요한 시약과 기구는 직접 마련했다. 밤에는 야간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낮에는 실험실에서 논문을 썼다. 고려대 대학원 시절에는 대한화학회지에 3편의 논문을 실었다.

-그 시절, 과학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셨습니까?

“주위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요. 가난했고, 가족도 돌아야 했고, 교사로 계속 일하면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



1968년 네이처에 한국인 첫 논문 발표
평생을 방사선 및 온열치료 연구에 매진
IAEA고문 · 북미온열학회 회장 등 역임

황효숙 미주동창회장단의 든든한 큰 어른
건강 비결은 매일 아침 10분 온열 목욕

만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접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밤낮없이 공부했고요.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제1호 원자력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 유학을 떠났다. 영어는 물론, 학문적 수준도 부족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전장에서 배운 인내로 모든 난관을 넘었다.

-유학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영어가 가장 힘들었어요. 대화는 물론 수업 따라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지요. 중간에 귀국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버텼습니다. 그때 배운 것은,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1968년 그는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했다. 주제는 동물세포의 DNA 합성 시간 측정이었다. 그는 Autoradiography 기법을 응용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고, 이로써 세계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네이처’에 실린 논문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DNA가 복제되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실험을 통해 세포가 DNA를 복제하는데 8~9시간 걸린다는 사실을 밝혔지요. 이 결과를 ‘네이처’에 보냈고, 무리 없이 게재됐어요. 당시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후 그는 방사선 생물학에 집중했다. 미국 국립 암연구소,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미온열학회 등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다. 정의방사선치료(SABR), 온열치료 등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암세포의 혈류 환경에 주목했고, 정밀한 방사선 조사를 통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정의방사선치료는 기존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에는 암에 매일 소량씩 30~50회 방사선을 쬐었어요. 이제는 CT와 MRI로 정확히 암의 위치를 파악하고,

고용량 방사선을 짧은 횟수로 집중 조사합니다. 암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온열치료는 어떤 방식입니까?
“암세포를 42~43도로 가열하면 암 조직의 혈관이 손상되고 세포가 괴사합니다. 미온으로 가열하면 혈류가 증가해 산소와 약물 전달이 잘 되고 방사선 치료 효과도 높아지죠. 제가 제시한 이론은 처음에는 회의적 시선을 받았지만, 지금은 임상에서도 검증되고 있어요.”

그는 후학 양성에도 열정을 쏟았다. 1980년대, 방사선치료 인프라가 부족했던 한국의 20여 명의 유학생을 가르치며 국내 방사선 암 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지금도 그들과 학문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에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파견된 사람입니다. 비록 유학 후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는 바람에 귀국해 봉사할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국가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나의 능력껏 한국의 방사선 치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힘써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다 않고 기꺼이 할 것입니다.” 그는 최근 모교 화학과에 장학금 1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기부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서울대는 제 인생의 뿌리입니다. 90 인생에서 4년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지요. 감사한 마음에 기부했어요. 그 돈은 ‘송창원 강연 프로그램’으로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9월 초 서울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과학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말씀해 주신다면.

“호기심, 상상력, 인내심, 소통 능력, 예술적 감수성, 한 우물을 파는 자세. 이 여섯 가지를 꼽고 싶어요. 연구 분야를 쉽게 바꾸지 말고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충실해야겠지요.” 그는 지금도 하루 5시간 이상을 글쓰

기에 투자한다. 전쟁을 겪고 과학자의 길을 걷는 동안, 늘 기록하고 정리했다. 그의 책 ‘나는 6.25의 학도병 그리고 과학자 송창원입니다’에는 당시의 기억이 담담하게 기록돼 있다. 인생의 전환점마다 그는 기록을 남겼다.

-전쟁과 학문을 함께 돌아본 회고록을 쓰신 이유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 과학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연구실이 닫히며 시간이 생겨 쓸 수 있었지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를 위한 책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조국의 지원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동문들에게도 한가지를 당부했다. “미국 대학들은 동문회의 힘이 큼니다. 서울대 동문들도 모교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남주 기자

약력

△1959년 국비 원자력 유학장학생으로 유학 △1964년 아이오와대 이학박사(방사선생물학) △1969년 버지니아 의대 방사선치료과 조교수 △1970년 미네소타 의대 방사선치료과 조교수 △1987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 고문(11년간) △1988년 미국국립보건원(NIH) Merit Award △1991년 중국 시안암센터 방사선치료과 명예교수 △1994년 북미온열학회 회장 △2000년 북미온열학회 유진 로빈슨상 수상 △2001년 미네소타대 의료원장 우수교수상 △2006년 미네소타대 은퇴, 명예교수 임명 △2008년 국제온열학회 스가하라상 수상 △2014년 한국원자력의학원 고문 △2016년 대한민국호국영웅 기장 수여 △2019년 미주 서울대 총장 학술상 수상

임은성(수리과학 2018) 동문, AI 회의 요약 앱 '티로' 소개

김량국(사대 92) 동문이 전하는 창업네트워크 소식

지난 8월 12일,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창업네트워크(기업넷) 정기 모임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모임에서는 회원사들의 근황 공유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소개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먼저 회원들은 지난 한 달간의 사업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각자가 겪은 도전과 극복 과정, 그리고 작은 성공들을 나누며 서로 영감과 격려를 공유하였다.

“회의 끝나기도 전에 회의록 작성 완료”

말하는 순간 기록되는 AI 도구 '티로'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임은성(수리과학 / 컴퓨터공학 2018) 동문의 발표였다.

임 동문은 자신의 회사 The Plato에서 개발한 AI 회의 요약 앱 “Tiro”를 소개했다.

Tiro는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서비스로, 중요한 결정사항을 놓치지 않고 정리

해준다. 특히 여러 참가자의 발언을 구분해 기록하고,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기능이 인상적이었다. 바쁜 비즈니스 환경에서 회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도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곧 출범할 “기업넷 마켓”의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B2C 제품은 마켓 웹사이트에 직접 게시되지만, B2B 제품과 서비스는 동문회가 직접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자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문회가 해당 기업을 잘 알아야 하므로, B2B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문 기업들은 기업넷 모임에 적극 참여해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음 기업넷 정기 모임은 9월 9일 오후 6시(PDT)에 예정되어 있다.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동문은 rkim@oakbioinformatics.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티로를 개발해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임은성 동문.

뇌과학 개척한 이진형 교수는 젊은 과학도들의 멘토 <스탠퍼드대>

제18대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가 젊은 동문 영입을 위해 선후배와의 대화, 아카데미에 기반한 전문 포럼, 산업계 종사 젊은 동문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계획인 가운데 뇌과학 연구의 선구자인 이진형(전기공학과 95) 스탠퍼드대 종신 교수가 의미 있는 동문회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진형 동문은 스탠퍼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3년 스타트업 엘비스(LVIS)를 창업해 뇌 회로 분석을 통해 뇌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뉴로매치를 개발, 2023년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 현재 한국과 미국의 병원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동문은 교수이자 벤처기업가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워싱턴주 동창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이 매달 줌으로 개최하는 SNU포럼에 강연자로 나와 ‘인공지능과 뇌 건강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주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와 후배들에게 인생 조언을 건넸다.

“이번 장학금 수여가 커뮤니티의 미래 투자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각자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랑과 지원을 해주는 우리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공유하며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공유하기 바랍니다.”

전기공학을 공부한 이진형 동문이 뇌과학자로 우뚝 서게 된 스토리는 영화로 만들어져도 흥미로울 만큼 드라마틱하다.

이 동문은 학부 전공부터 박사학위까지 모두 전기공학 외길을 걸었다.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박사를 졸업할



이진형 스탠퍼드대 신경학·생명공학과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2025 테크 퀘스트에서 '인공지능, 건강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전기공학 박사에서 뇌과학 연구로 전환

AI 기반 뇌질환 진단 뉴로매치 개발

미주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서 기조연설

“창의성 · 융합적 사고 결합해야 성공”

때쯤 외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 동문에게 외할머니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안식처이자 위안을 주는 버팀목이었다. 그런 외할머니가 반신불수가 돼 12년 남은 여생을 병상에서 지내는 것을 보면서 그는 “뇌도 회로처럼 신경망이 연결돼 서로 통신하는 구조이고, 그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뇌 회로도’를 파악하면 질환의 원인 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고칠 수 있지 않

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뇌과학 연구에 뛰어들게 됐다. 전기공학자로서 발상의 전환이었다.

UCLA 전기공학과 교수로 임용된 상황에서 갑자기 뇌 연구로 진로를 바꾸겠다는 그를 지인들은 뜬어말렸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신경세포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배우며 매일 새벽 2시까지 연구실에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실험을 계속했고 마침내 120번째

실험에서 성공에 이르렀다.

뇌 신경 활동과 혈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 변화 간의 연관성을 밝혀낸 논문으로 2010년 네이처를 통해 발표하면서 의학계의 주목을 받게 됐고,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스탠퍼드대 종신교수로 임용됐다.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의대 신경학과와 공대 생명공학과 겸임 교수가 됐다. 이 동문의 연구는 특히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 질환에 집중되어 있다.

이 동문은 교수와 벤처기업인으로서의 연구 활동 중에도 모교인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한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후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며, 공학과 의학의 융합 연구가 미래 뇌과학을 이끌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가 결합돼야 한다”는 그의 조언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최승희(사회대 81) 편집위원이 만난 한만섭(공대 49) 동문

미네소타 프로젝트 1세대 … 95세에도 매주 하이킹

매우 더웠던 8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 북가주 동문 하이킹 모임이 열리는 장소로 부지런히 갔더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도착하신 분은 모임의 최고 연장자이신 한만섭 선생님 내외였다. 서울대 항공과 교수를 지내신 한만섭 박사님은 얼마 전 95세 생신을 맞으셨지만, 활동량은 그 어느 장년층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으시고 여러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박사님보다는 늘 “선생님”으로 불린다.

한 선생님은 매주 골프 18홀을 두 번씩 걸어서 치시고, 한 번은 하이킹에 나오신다. 또 이 지역 한인회에서 7~8년 동안 포토샵 강의를 이어오셨는데, 수강자들은 취미 활동뿐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에도 이를 활용한다. 꽃집을 운영하는 한 수강자는 구매 비용이 매우 비싼 특수 인쇄 리본과 테이프를 포토샵으로 직접 제작해 단가를 낮출 수 있었고, 한 선생님의 무료 강의에 깊이 감사드렸다.

한 선생님의 다양한 이력을 조금은 알고 있던 나는, 하이킹 멤버들이 모임에 합류하기 전 선생님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가졌다. 지난 6월 미네소타에서 열린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회회의에서 올해가 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한 선생님께서 1회 참가자이셨기에 그 이야기부터 여쭙게 되었다.

선생님은 1949년 서울대 조선항공학과(당시에는 조선공학과와 항공학과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입학하셨고, 1955년 석사 과정 중 당시 주임 교수였던 김재근 교수로부터 곧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을 예정이니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한다.

김재근 교수는 일제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인천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해방 후 서울대 조선항공학과 주임을 맡게 된 분이셨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6·25전쟁 직후 미국 정부가 한국 재건을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공대·의대·농대 교수진(조교부터 교수까지) 중에서 선발해 미네소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게 한 프로그램이다.

1차 연도에는 공대에서 15명이 참가했는데, 당시 25세였던 한 선생님은 최연소 참가자였다. 선발된 연수생들은 동송동 문리대 자리에서 미국 사회와 생활 전반에 관한 연수를 받고, 미국을 향해 떠나게 되었는데 그 여정이 참으로 지난하다.

여의도 공항에서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다시 앵커리지를 거쳐 시애틀에 도착한 후 하룻밤을 자고 미니애폴리스까지 가는 길고 긴 여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선발된 인재들이 한국을 대표하고 또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엘리트들이었던 만큼 미국 정부에서 North West 항공사의 1등석을 제공했기에, 그 출발은 무척이나 희망차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중순 북가주 하이킹에 참석한 한만섭(오른쪽) 이 성덕 동문 부부.

미네소타 대학에 도착한 뒤에도, 출국 전 받은 연수와 학문에 대한 각오와 열정, 그리고 대학측의 따뜻한 환영 덕분에 엄청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문화 충격 없이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선생님은 회고하셨다.

연수생들은 개인 사정과 소속 학과의 상황에 따라 석사나 박사 학위를 공부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서울대가 조선항공학과를 조선공학과와 항공학과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기에 선생님은 김재근 교수의 재촉을 받아 석사 후 귀국해 항공학과 설립을 도왔다. 이후 강의를 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우수한 학술지 Journal of Fluid Mechanics에 논문을 발표했고, 이 논문이 서울대 박사 논문이 되었다.

박사 후 연구원 연수 과정(미국 학술원 경비 지원)으로 샌프란시스코 인근 NASA Ames 연구소에서 2년간 연구를 한 뒤 보잉사에 취직해, 삶의 무대를 서울대에서 보잉으로 옮기게 됐다. 보잉에서는 25년간 근무하며, 비행기 날개를 어떤 유선형으로 설계해야 공기 마찰을 최소화하고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연구했고, 그 결과는 보잉 747·767·777의 설계에 선도적으로 반영되었다.

선생님은 자신의 전공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과 흥미를 갖고 계신데, 특히 전 세계 여행 기록은 아이들의 지리·사회 교과서로 써도 될 만큼 알차다. 칠레 과타고니아 지역 크루즈 여행 후 정리하신 자료에는 포토샵으로 다듬은 멋진 사진과 함께 그 지역 기후, 파나마 운하 건설 전후

1955년 최연소 참가자로 1등석 타고 미네소타로 석사 마치고 귀국해선 항공학과 설립 도우며 강의 보잉사로 터전 옮겨 25년 비행기 날개 설계 선도

역시 동문인 부인과는 고향 함흥서부터 80년 인연 근현대사 기록물인 자서전, 하버드대 도서관에 등재 고령에도 지역 한인들에게 포토샵 강의, 왕성한 활동

의 경제·사회 변화까지 담겨 있어 참으로 인상적일 뿐 아니라 교육적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흔히들 여행은 은퇴 후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의 여행에 대한 관심은 언제쯤부터 시작되었는지 여쭙 보았다. 역시 계기는 미네소타 프로젝트였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마치고 귀국하던 1957년 항공학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려고 들른 동경대 도서관에서 ‘세계의 관광 명소’라는 책을 접했고 1960년 로마에서 열린 항공학회에 참석해 고대 로마의 유적지를 보면서 유럽 여행의 첫발을 디뎠다. 보잉 퇴직 후 삼성 자문으로 일할 때는 동남아 여행도 많이 하셨다. 여행 후에는 항상 사진과 함께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세심한 설명을 곁들인 여행기를 만드셨다.

95세를 맞이해서도 육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특별한 건강 비결을 묻자, “보약은 먹어본 적 없고, 규칙적인 생활과 아내의 집밥”이라는 간단한 답이 돌아왔다.

역시 서울대 동문인 아내 이성덕(사회학과 52) 여사와의 인연은 80년을 거슬러 올라 간다. 두 분은 함흥 출신으로 기독교 집안 자녀들의 모임인 ‘함흥 기독교 학생 면려회’에서 중학생 때 처음 만나, 이후 남한에서 면려회를 통해 재회했고 6.25 전쟁이 나자 선생님께서 공군사관학교에 잠시 입학, 진해 공항에서 훈련 받을 때 진해로 피난 온 사모님을 다시 또 만나게 되었다. 이

쯤되면 거의 운명이 아닐까. 두 분은 1955년 마침내 결혼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하이킹에서 두 분을 보면 여전히 서로를 존경하고 위하는 모습에서 단란한 가정의 비결을 찾게 된다.

두 분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셨는데, 장남은 하버드 의대 출신으로 현재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임상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 선생님의 지적 호기심과 다방면에 대한 관심은 두 권의 저서로도 이어졌다. 첫 번째는 한글과 영문으로 출간된 자서전으로, 1930년 함흥에서 태어났을 당시 함흥 지역에 대한 기술로부터 시작, 해방 후 남하하여 서울고를 거쳐 서울대에 입학, 6.25를 겪었던 한국의 격변기와 미국에서의 생활 등을 담아 개인사를 뛰어 넘어 근현대 한국사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하버드 대학 앤칭 도서관에도 소장되었다.

두 번째는 재독 교포 신동삼씨와 함께 펴낸 ‘함흥, 사진으로 보는 전쟁과 재건의 역사’로 해방 이후 함흥이 6.25를 거치며 폭격으로 유명도시화되었다가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그리고 May Day나 어린이날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등 함흥의 변천과 사회·문화상을 8000여 장의 사진과 함께 정리한 책이다.

하이킹을 통해 만난 북가주 지역의 동문은 30 여명으로 매주 만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가족 같은 사이다. 선생님의 결혼 60주년 회혼식때 함께 모여 케이크를 자르면서 축하를 드렸다가 하면 선생님께서 서울대 동창회장상을 받으셨을 때 역시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가 모든 이의 귀감이 되기에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도 여쭙았다. 예상대로 보편적 지식을 넓히는데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어의 습득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늘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정말 선생님께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오늘도 사모님과 함께 걸으며 나이 어린 후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선생님께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 두 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



(왼쪽부터) 최승희 동문이 한만섭 동문 부부의 결혼 60주년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회혼식을 축하하고 있다. 80년 인연인 한만섭 동문 부부의 1954년 계곡 데이트 모습.



우리 지부 소모임 동아리

동문들이 관심을 갖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취미 동호회가 다양해지면 동창회도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거의 모든 지부들이 골프모임을 하는 것도 많은 동문들이 즐기는 운동이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세대를 넘어 친목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문 규모가 제법 되는 지부들은 하이킹, 북클럽, 합창, 바둑, 산악 자전거, 테니스 등 다양한 소모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부에서 동문들이 비교적 많이 참여하고 있는 소모임들을 소개한다.

남가주 동문합창단, 음대 동창회와 가을 밤 음악의 향연

클래식 음악과 국악 어우러진 감동의 하모니

9월 20일 지퍼홀에서 6개월 연습 결실 선배

남가주 동문합창단(단장 김홍일)과 음대 동창회(회장 장진영)가 오는 9월 20일(토) 오후 4시, LA 콜번 스쿨 지퍼 콘서트홀에서 한여름 밤의 향연을 펼친다.

공연은 이탈리아 작곡가 팔레스트리나의 'Sicut Cervus'로 막을 올린다. 노래는 시편 42편의 첫 구절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르네상스 종교음악의 대표작으로, 고요하면서도 영적인 갈망을 표현한다. 이어지는 모차르트의 'Laudate Dominum'에서는 소프라노 조은아 동문의 솔로와 합창이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솔리스트 무대도 다채롭다. 플루트 연주자 최혜성 동문은 피아니스트 제갈소망의 반주로 '카발레리아 루스티



김미자 동문의 해금 연주.

카나' 간주곡 등 두 곡을 연주한다. 또한 김미자 동문은 해금으로 '천년만세' 중 계면과 양청도드리를 연주하며 한국적 울림을 전한다.

합창단은 이어 소프라노 박영, 김주연이 함께하는 '가을, 그리고 강물', '고향이 그리워', '가을이 오면' 등 한국 가곡으로 1부 무대를 마무리한다.

2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아, 첼리스트 김원선, 피아니스트 제갈소



남가주 동문합창단은 매년 뮤직센터 인근 지퍼 콘서트홀에서 정기 공연을 갖는다.

망이 동문 트리오로 출연해 폴 손펠드의 '카페 뮤직'을 들려준다.

공연의 대미는 합창단이 장식한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의 명장면 'Va, Pensiero'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가 무대를 압도하며, 이어 소프라노 김주혜의 비제 '카르멘' 중 '하바네라', 그리고 테너 이규영·소프라노 김주혜가 함께하는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Brindisi)'가

절정을 이룬다.

이번 공연은 장진영 동문이 지휘를 맡는다. 김홍일 합창단장은 "단원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2회씩 모여 열정적으로 준비했다"며 "동문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장소: 지퍼홀 (200 S. Grand Ave., Los Angeles) ▶문의: 323-428-6633 / hkim111@gmail.com



지난 8월 16일 여름 야유회에 참가한 북가주 동문들이 함께 단체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남가주 대학원 동문회

하계모임서 훈훈한 동문애

남가주 대학원 동문회(회장 윤수현·환경대학원)가 지난 8월 14일 LA 한인타운 용수산 식당에서 하계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지난 2월 총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자리였다.

여름휴가 일정과 겹쳐 참석 인원이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7명의 동문이 모여 동문애를 나눴다. 이날 모임의 최고참은 차종환(사대 54, 대학원)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이었고, 막내는 김수지 동문이었다. 회의에서는 동문들의 품위 유지와 최고경영자 과정(AMP) 이수자 영입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막내 김수지 동문은 자신이 직접 담긴 석박지를 준비해 와 여름철 입맛을 돋웠다. 정신(보건대학원) 전 회장은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다"며 식사비 전액을 부담해 훈훈함을 더했다.

취재: 이호진(간호대 74·보건대학원)

90여명 함께 한 북가주 여름 야유회

젊은 동문들, 아기 데려오고 바이올린 연주로 분위기 업

북가주 동문회(회장 김범섭)는 8월 16일 쿠퍼티노 Sycamore Group Picnic Site에서 9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여름 야유회를 가졌다.

시원한 날씨 속에 열린 이번 야유회에서 고무적이었던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처음 참석하는 동문들도 많았다는 것이다. 참석한 학번대는 49학번 부터 2013학번까지

골고루 퍼져 있었을 뿐 아니라 젊은 동문들이 아기를 데려와 잔치 분위기를 훨씬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임승쾌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로 중책을 맡게 된 소감을 전했고 동문회는 퇴임하는 김철규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야유회는 이윤정, 서유리 등 음대 동문 2명의 노래와 바이올린 연주로 즐거움을 더했고 다같이 모여 먹는 비빔밥과 다과는 웃음꽃을 피게 했다.

북가주 동문회는 9월에 음대 동문 음악회와 골프대회, 그리고 12월에 송년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

취재: 최승희(경제학과 81) 편집위원



모임에 참석한 대학원 동문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차종환, 최종혁, 김수지, 윤수현, 이호진, 정신, 최태호 동문.

음악과 우정이 빛어낸 할리웃 보울의 한여름밤



지난 8월 5일 할리웃 보울 가족의 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과 우의를 다짐하고 있다.

남가주 총동창회 '동문 가족의 밤' 성료

달빛과 별빛이 내려앉은 LA 할리웃 보울. 지난 8월 5일, 남가주 총동창회가 주최한 연례 '동문 가족의 밤' 행사에 30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오랜만의 재회를 기쁨 속에 나눴다. 동문들은 서로의 근황을 묻고, 지난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와인을 곁들인 도시락 디너로 시작했다. 음식 준비에는 안혜정(생과대 77) 박사를 비롯해 김경무(공대 69)·최정희(간호대 71) 전 동창회장 부부, 이호진(간호대 74), 이상호(사대 80) 동문 등이 힘을 보탰다. 이들은 무려 38박스 분량의 음식을 마련하느라 전날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했다. 이외에도 이영현(간호대 70), 나용화(생과대 79) 동문 등 임원진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올해는 특히 연로한 동문들을 위해 처음으로 버스를 대절,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이같은 주최 측의 세심한 배려에 참석자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채규환 회장(법대 69)은 "모처럼의 나들이이니 마음껏 즐기시고 우의를

다지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현림(음대 81) 동문은 이날 무대에 오를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연주 곡목인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듀크 엘링턴의 재즈 음악에 대해 흥미로운 해설을 곁들여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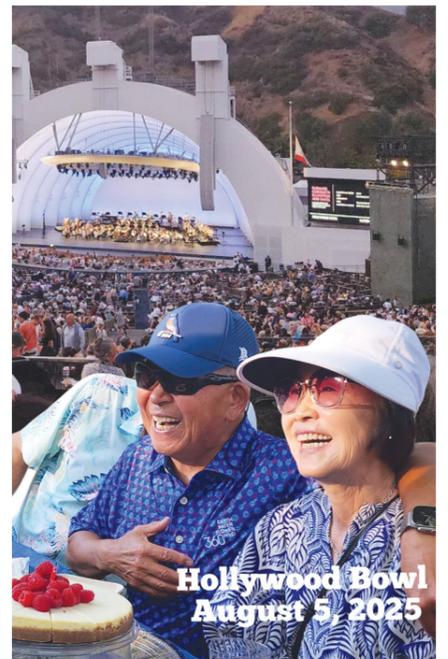
이날 참석한 동문의 입학 연도는 1958년(김병완·박상길·박종수·이명선·한효동)부터 2014년까지, 무려 56년의 세월 차가 났다. 그러나 모두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문들"이라며 세대 차를 넘어 화기애애하게 어울렸다.

2014학번 김영서(공대·UCLA 교수) 동문과 신윤기(경제학·식품벤처사업) 동문은 "선배님들의 따뜻한 환대가 놀랍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동창회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동문은 양수진(간호대 80) 차기 회장의 권유로 오는 11월 2일 열리는 '관악세대 갈라'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디너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할리웃 보울 야외극장으로 이동했다. 마에스트로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조성



2014학번의 김영서(왼쪽) 동문과 신윤기 동문.



이날 생일을 맞은 서치원(공대 69) 동문이 축하 케이크를 받고 밤바웃음을 터트리고 있다.

진은 청중을 환상적인 음악 여행으로 이끌었다.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터치, 완벽한 호흡이 어우러진 연주는 동문은 물론 현장의 모든 관객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 음악과 우정이 하나 된 한여름밤. 그날의 감동과 여운은 오랫동안 동문들의 마음속에 빛날 것이다.

'빛과 정적의 향연'

고석자 동문의 사진전 LA서 성황

빛과 정적이 어우러진 순간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사진작가 고석자(문리대 불문학 72, 영어명 Sue Park)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8월 2일 LA 한인타운 샤토갤러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고 동문이 오랜 시간에 걸쳐 촬영한 80여 점의 작품이 걸렸으며, 서울대 동문뿐만 아니라 주류사회 인사들도 다수 자리를 빛냈다.

고 작가의 작품은 풍경과 일상의 장면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감정과 사유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흑백과 컬러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동양적 미학을 바탕으로 빛과 그림자, 여백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포착했다.

그의 사진 속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감정과 대화를 나누는 매개체다.

작품 속 잠시의 멈춤과 고요함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장면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다. 이번 전시회 제목 '빛을 그리다' (Anthology of Light)도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잘 담아낸다.

고 동문은 미국에 유학와 'New York Institute of Photography'에서 사진학을 전공한 작가로, 일본 도쿄·프랑스 파리·헝가리 부다페스트·러시아 모스크바 등지에서 열린 국제 사진전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그의 작품은 러시아 푸시킨 미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미술관, 우즈베키스탄 현대 미술관 등 세계 유수 기관에 소장돼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인터내셔널 포토그래피 어워드(IPA)



개막 리셉션에서 포즈를 취한 고석자(가운데) 동문. 왼쪽은 부군 박문규 박사, 오른쪽은 김경숙(생과대 70) 전 미주 동창회 사무총장. 배경 작품은 2016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촬영한 'Propose'로, 수컷이 암컷에게 춤을 추며 청혼하는 장면을 담았다.

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며 국제적 명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LA에서 샤토갤러리를 운영하며 다양한 국내외 전시를 기획, 한국과 해외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현재 샤토갤러리는 한인

예술계는 물론 주류사회와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 작가는 부군 박문규 박사(정치학 68)와 함께 문리대 동문 부부로 잘 알려져 있다.

여름밤, 라비니아에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만끽하다!

시카고 지부

음악 애호가 동문 30여명
야외 공연 보며 친목 다져

시카고 지부 음악 동아리 회원들이 지난 8월 3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라비니아 야외 음악당(Ravinia Music Festival)에 모여 웅장하고 화려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함께 즐겼다. 시카고 심포니의 연주로 꾸며진 특별한 밤, 동문들은 차이코프스키의 걸작들을 감상하며 깊어가는 여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흔히 ‘운명 교향곡’이라 불리는 교향곡 4번을 시작으로, 첼리스트 즐라토미르 핑(Zlatoimir Fung)이 협연한 로코코 변주곡(Rococo Variations), 그리고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진 ‘1812년 서곡’이 연주되었다. 특히, 국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젊은 거장 즐라토미르 핑의 연주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해마다 라비니아를 뜨겁게 달구는 ‘1812년 서곡’은 클래식 부분에서 터지는 실제 대포 소리로 짜릿한 전율을 안겨주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1905년 문을 연 라비니아는 120년의



라비니아 야외 음악당에 모인 시카고 음악 애호 동문들. 매년 여름 함께 공연장을 찾아 와인, 과일을 나누며 음악을 즐기고 있다.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야외 음악당으로, 36에이커에 이르는 아름다운 공원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시카고 지부 음악 동아리는 매년 라비니아 페스티벌을 찾아 클래식 음악을 함께 감상하

고, 와인과 치즈, 과일 등 풍성한 만찬을 나누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모차르트 프로그래밍, 2023년에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그리고 2022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감상하며 음악적 교류를 꾸준히 이어왔다. 올해도 30여 명의 음악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사진= 이영우(문리대 66)

여름 피크닉, 웃음과 봉사·나눔으로 따뜻했던 하루

워싱턴주

워싱턴주 동문들의 하계 피크닉이 열린 지난 8월9일, 날씨는 매우 화창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피크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하루였다.

이번 행사에는 동문 55명과 장학생 4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함께하여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Newcastle Beach Park는 2년 전에도 여름 피크닉 장소로 사용했던 곳인데 그때는 오리들이 많아 다소 지저분한 인상이 있었지만, 올해는 우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공원도 깔끔해 많은 동문들이 크게 만족했다. 다만 워낙 인기 있는 공원이자 보니 올해도 반나절(오후 2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짧은 행사 시간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행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었지만, 봉사자들은 준비를 위해 오전 9시 30분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정은구(치의예92)·김수영(농대93) 동문 부부와 임현민 동문(공대84) 부부가 제일 먼저 도착해 준비를 시작했고, 곧 다른 봉사자들도 속속 합류했다.

임소영(간호대87) 동문은 병원 On Call로 자유로이 전체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짬을 내 시작 전 잠깐, 그리고 행사 마감 직후 다시 방문하는 열정을 보여 주었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임현민 전 회장의 부인 서인숙 여사는 해물 부침을 준비해 서로 나눠 먹으며 분위기를 돋웠고, 매년 BBQ 굽는 일을 맡아온 이정관 회장(농대83)의 막내아



워싱턴주 동문들이 지난 8월9일 뉴캐슬 비치 파크에서 피크닉을 열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문 55명 · 장학생 5명 등 60여 명 한자리
고사리 즉석 판매해 275불 장학기금 기부

들이 풍치와 불고기 준비를 위해 숲길을 피웠다. 이어 십수 년간 여름 행사 BBQ를 책임져 온 송은주(간호대85) 재정 총무의 부군 최경욱 교수가 도착해 시작부터 끝까지 BBQ를 맡았고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마칠 무렵에야 늦은 점심을 시작하는 봉사 정신을 보여주었다.

11시경 장학생들이 모두 도착해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올해는 3명의 일반 장학생과 2명의 UW 한국학과 학생 등 총 5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수여식 직후, 흥미

영(약학대학원92) 동문이 준비해 온 고사리를 즉석 판매해 275달러를 모금했고,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

이어 얼마 전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서 서울대 총장상을 받은 김재훈(공대72) 동문과 미주동창회장상을 받은 임현민 동문에게 상패 전달과 함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자 2대 장학위원장에게 이어 3대 장학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은구 동문의 인사가 있었고, 이어 오랫동안 새로 나오거나 처음 나온 동문들이 인

사 소개를 했다.

점심은 풍치, 불고기, 밥, 수박, 떡 등 동문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동문들이 각자 정성껏 준비해 가져온 다양한 메뉴가 더해져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가 이어졌다.

점심 후에는 준비된 두 가지 게임 중 시간 관계상 빙고 게임만 진행하였고, 코스트코 김, 임현민 전 회장이 준비한 수건과 장갑 등 푸짐한 상품 덕분에 거의 모든 참석자가 기념품을 받을 수 있었다.

오후 2시, 아쉬움을 뒤로하고 행사를 마무리하며 내년에는 더 넉넉한 시간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만나기를 기원했다. 함께 웃고 나누며 즐거운 하루를 만든 모든 동문과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

글= 이정관(농대 83) 워싱턴주 지부 회장

시카고에서 케이프 코드까지 윤봉수(간호대 69) 동문의 17시간 로드 트립

매년 여름이면 바다낚시 출발! 자유와 낭만을 낚다

은퇴 후, 저희 부부에게 로드 트립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케이프 코드로의 심해 낚시 여행이 있죠.

강릉이 고향인 남편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바다낚시를 다녔고, 미국 이민 초기 보스턴에서 사귀 친구들과 케이프 코드에서 주말마다 낚시를 즐겼던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바다가 없는 시카고의 민물 낚시보다는 멀더라도 케이프 코드까지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두 번을 가고 싶어 하지만, 워낙 먼 길이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름 이맘때면 남편은 낚시하러 가야 한다며 매일 노래를 부르곤 해요! 저는 옆자리에 앉아 동행하고, 운전은 남편이 주로 맡습니다.

저희의 로드 트립은 한마디로 “케어프리 여행(Care-free Travel)”입니다. 목적지는 있지만, 훌쩍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서고 싶으면 서고,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큰 선심을 쓰는 적하지만, 사실 물리적인 제약 없이 자유로운 로드 트립을 저 역시 무척 좋아합니다.

공항에 일찍 나갈 필요도 없고, 길고 지루한 보안 검색 줄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 복잡하게 여러 옵션을 따져가며 렌터카를 예약할 필요도 없죠. 그저 여행 가방에 넣고 싶은 것을 싸서 미니밴에 실으면 그만이니, 이 얼마나 마음 편한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나는 풍경을 감상하고, 그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에 저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인디애나, 미시간, 오하이오주를 지나는 동안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밭과 콩밭을 보며 이 광활한 곡창지대가 바로 미국의 풍요로움의 근원임을 깨닫습니다. 90번 국도를 따라 펜실베이니아주를 한 시간 반 정도 지나면 드디어 뉴욕주로 들어섭니다.

시카고에서 케이프 코드까지는 약 17시간이 넘는 긴 여정입니다. 이 나이에는 적어도 이틀 밤은 가는 길에 숙박을 해야 하죠. 로드 트립은 케이프 코드 여행의 필수 코스입니다. 남편은 낚시꾼답게 커다란 아이스박스 하나와 그보다 작은 아이스박스 두



윤봉수 동문이 케이프 코드 바다낚시에서 잡은 생선을 들여보이고 있다.

끝없는 들꽃들, 나무와 숲들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고, 가는 도중 만나는 강들과 호수, 개천은 지루할 수 있는 긴 여행길에 활력을 불어넣는 양념 같은 존재입니다.

지평선과 맞닿은 하늘 캔버스에는 때로는 잔잔한 깃털구름이, 때로는 빛나는 뭉게구름이 그려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먼 길을 동행해 주니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정겹고도 고맙습니다. 읽을거리를 손에 들고 있다해도, 창밖 풍경에 심취해 상상의 나라를 펼쳐거나 단상에 잠기곤 합니다.

케이프 코드에 도착해서 낚시를 하지 않는 날에는 하이애니스(Hyannis) 다운타운의 작은 상점들을 기웃거리고, 해안가와 부두에 나가 거닐기도 합니다. 주변의 공원과 박물관을 찾아 여유를 즐기기도 하죠. 미니밴에는 고기잡이 장비와 함께 골프채도 챙겨와 근처 골프장에서 골프도 칩니다. 매년 이곳에 오니 주변과 거리가 익숙해져 마치 두고 온 또 하나의 고향에 돌아온 듯 편안합니다.

여행 기간이 충분하면, 돌아오는 길에 잡은 생선도 나눌 겸 동부에 사시는 큰 시누이와 큰 시동생이 계신 델라웨어주를 방문합니다. 같은 미국에 살아도 자주 만나기 어렵기에, 이런 기회를 통해 형제들을 만나 생선을 나누어 주고 며칠 묵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오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차창 밖을 내다보니, 저희는 에리 운하 헤리티지 파크(Erie Canal Heritage Park)를 지나 뉴욕주의 주도인 올버니(Albany)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사추세츠주의 우스터(Worcester)에서 묵고, 내일 오전 중에 드디어 목적지인 케이프 코드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심해 낚시에서 남편이 만족할 만큼 많은 생선을 잡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 로드 트립은 저희 부부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삶의 풍요로움과 자유를 만끽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윤봉수(간호대 69) 동문**은 시카고 시니어 동문 모임인 골든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차기 시카고 동창회장으로 선출돼 2027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민 초기 보스턴 친구들과 즐겼던 추억 생생
놀멍쉬멍 옛 노래 들으며 차창 풍경에도 흠뻑

아이스박스에 잡은 생선 가득 채워 돌아오는 길
동부 사는 가족 만나 생선 나누며 즐거운 시간

개를 꼭 챙깁니다. 잡은 생선을 가득 채워 얼음을 갈아가며 집까지 가져와야 하기에 큰 아이스박스가 필요하고, 라면이나 간단한 한식을 먹을 때 필요한 밀반찬과 과일을 담은 아이스박스가 따로 필요하죠. 또 다른 작은 아이스박스 하나는 잡은 고기를 담으려고 배에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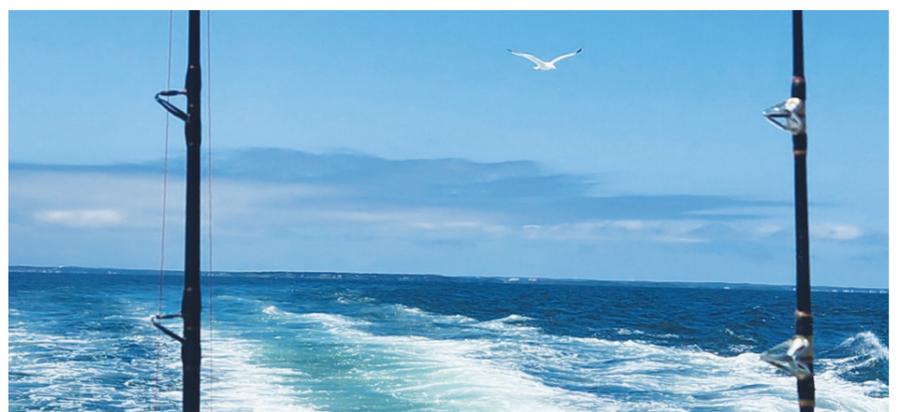
오가는 길 중간에 저는 한두 시간, 길면 세 시간 정도 운전을 합니다. 남편에게 잠시 휴식을 주고, 그동안 남편은 단잠을 자며 피로를 풀곤 하죠.

친구가 선물해 준 400여 곡이 담긴 USB로 학창 시절 인기 있었던 팝송, 통기타 곡, 흘러간 옛 노래들을 들으며 따라 부르는 것도 긴 로드 트립의 지루함을 달래주고 학창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불러오는 즐거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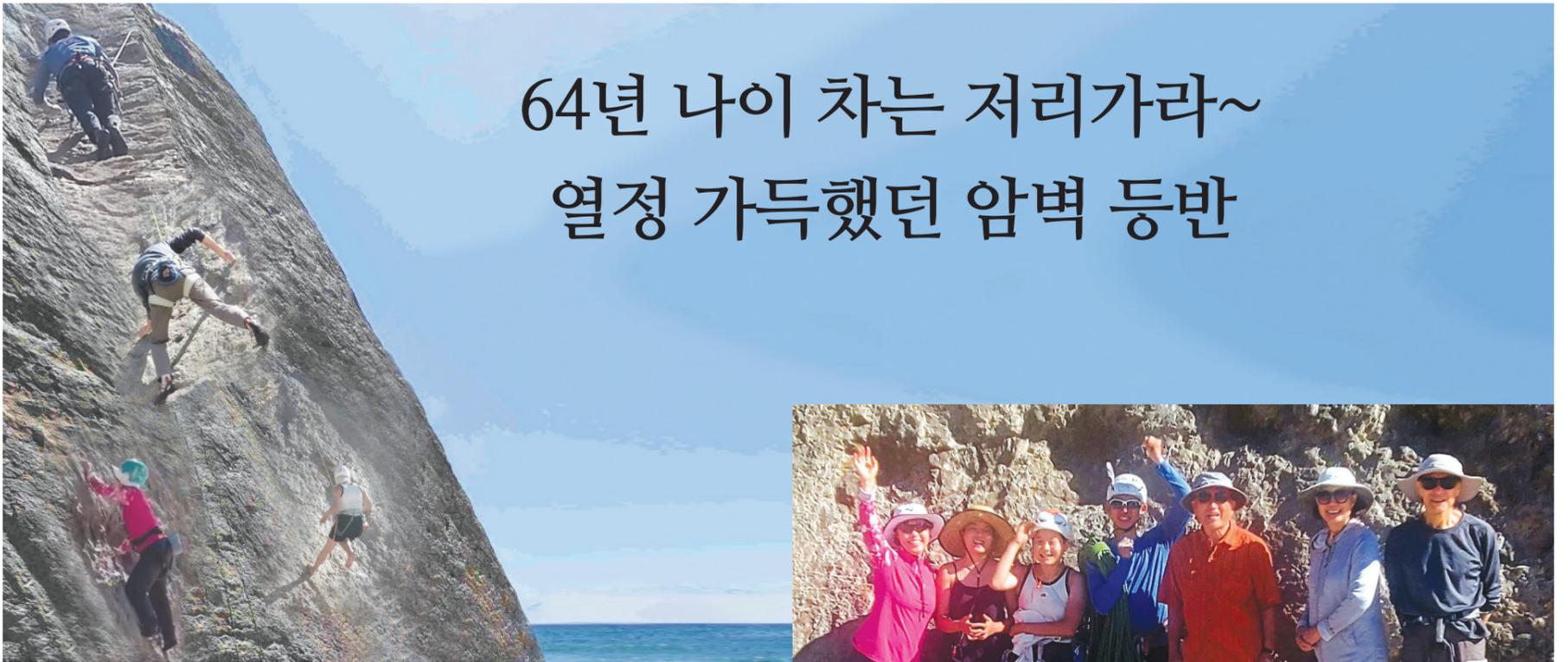
뉴욕주 서부에는 국도 주변으로 넓게 포도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에리 호수(Lake Erie)와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주변은 “아이스 와인(Ice Wine)”의 본고장으로 유명합니다. 포도나무 사이로 보이는



케이프 코드의 하이애니스 항구에 위치한 역사적인 랜드마크인 하이애니스 포트 등대.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가주 총동창회 등산반 팀과 한국에서 원정을 온 서울대학교 농대 산악팀이 지난 7월25일 남가주 말리부 포인트 돔 비치에서 암벽을 오르고 있다. 맨 위부터 김창곤(2020) 김동근(공대 60), 양수진(간호대 80) 최지효(2024) 동문. 등반을 마친 뒤 남가주 등산반 팀 선배들과 모교 후배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남가주 총동창회 등산반, 원정 온 서울대 농대 산악팀 한자리

김동근(공대 60) 동문, 2024학번 후배와 함께 등반
따뜻한 만찬 · 선물도 주며 서울대 유대감 확인

지난 7월 25일, 남가주 말리부의 아름다운 포인트 돔 비치에서 서울대학교 선후배 간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등산반 팀과 한국에서 원정을 온 서울대학교 농생대와 수의대 산악팀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암벽 등반을 함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등산반에서 김동근(공대 60) 대장 부부, 김홍묵(문리대 60) 동문, 그리고 양수진(간호대 80) 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대학교 산악팀

에서는 고예은(수의대 2023), 김창곤(농생대 2020), 최지효(수의대 2024) 학생이 참여해 젊음과 패기를 더했다.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암벽 등반에 대한 기대를 나눴다.

암벽 등반이 시작되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암벽을 오르는 이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열정이 가득했다. 노련한 동창회 팀은 안정적인 자세로 암벽을 능숙하게 타고 올랐고, 젊은 농대 산악팀은 거침없는 패기로 새로운 코스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후배는 서로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보내며 한마음으로 암벽을 정복해 나갔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마침내 모두가 성공적으로 암벽 등반을 마쳤다. 정상에서 바라본 푸른 바다와 하늘은 그들의 값진 노력을 보상해 주는 듯했다.

성공적인 암벽 등반 후, 김동근 대장은 모두를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초대하여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비록 연령 제한으로 와인 즐기 수 없었지만, 신선한 재료로 만든 피자 와 샐러드는 등반으로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식사 내내 선후배 간의 정겨운 대화가 오갔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이어서 따뜻한 선물 증정식이 이어졌다. 김홍묵 동문은 아웃도어 활동에 유

용한 다용도 툴을 선물하며 후배들의 안전한 산악 활동을 기원했다. 또한, 양수진 동문은 봉투에 용돈을 담아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농대 산악팀 학생들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의 만남은 단순히 암벽 등반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 서울대학교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함께 땀 흘리며 심취감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준 이날의 경험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들의 기억 속에 특별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그들은 아쉬움과 설렘 속에 헤어졌다.

글·사진 = 양수진(간호대 80)

남가주 선배들 후원 속에 엘 캐피탄 정상에

서울대 농생대와 수의대 산악회 학생들은 남가주 총동창회 등산반 선배들과 말리부 포인트 돔 비치 암벽 등반을 하기에 앞서 지난 7월9일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거대 암벽 하프 돔과 엘 캐피탄 바위 정상에 올랐다. 이들의 암벽 등반기를 산악반 선배로 남가주에 살고 있는 김인중(농생대 72) 동문이 보내왔다.

“걱정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며칠간 불편하게 쪽잠을 자고, 목이 마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서도 거벽 정상에 설 수 있을까?”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거대 암벽 하프 돔과 엘 캐피탄에 출사표를 던지며 서울에서 날라온 서울대 농생대와 수의대 산악회원 3명, 20학번 농생대 김창곤, 24학번 수의대 최지효, 23학번 수의대 고예은. 그리고 이들을 리드하는 대장 87학번 정철의 교수.

지난 6월 26일 LA에 도착한 이들은 LA 현지의 베테랑 암벽등반 대원 87학번 김기범씨의 차량과 숙박지원, 수의대 권태삼 수의사, 농생대 구자란 선배들의 후원 속에 6월 27일 요세미티

모교 농생대 · 수의대 산악회 후배 학생들

높이 900m 수직 절벽 엘 캐피탄 등반 성공

에 도착했다.

노스 파인(North Pine) 캠핑장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28일 까지 현지적응 등반을 마쳤다. 한상봉, 김광한 차량지원팀과 이승환, 전수 등 의리의 산악인들이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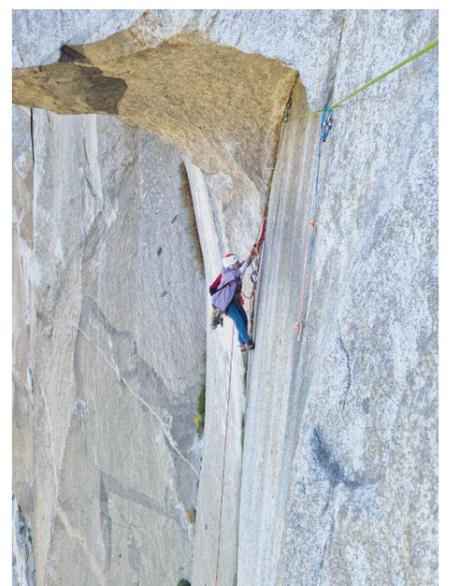
6월 29일 부터 엘캐피탄 이스트버레스 364미터(11피치)에 올랐다. 이곳의 암벽 루트들 중의 입문코스로서 난이도 5.10이며 암벽 적응과 훈련에 필요하다.

7월 2일 새벽에 하프돔 17피치에 오르며 3일 하프돔 정상에 올랐다. 요세미티의 대표 루트로 절벽에서 하룻밤 비박코스로 도전했다. 비박 코스란 선두가 바위에 로프를 걸고 리드하며 올라갈 때 세컨이 식량, 물과 비박장비를 가지고 따르는 것이다. 어프로치로 5시간이 소요됐고 하산길에 부상의 위험도가 높은 코스였다.

이들간의 예비일을 보낸후 7월7일 엘 캐피탄 더 노즈(the Nose) 도전에

나섰다. 높이 900 m의 수직절벽, 세계의 수많은 빅월 클라이머들이 등반을 꿈꾸는 암벽의 성지. 파타고니아 등반을 개척한 이본 취나드가 1957년 엘 캐피탄의 첫 암벽도전에 성공한 후 수많은 클라이머들이 도전에 나섰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바위에 매달려 올라가는 비박 코스다.

첫날(14피치)엘 캡 타우어에 올랐고, 절벽 위에 머물다가 8일 엘 캐피탄 더 노즈(24피치)에 올랐다. 이들 등반팀은 5피치를 오르거나 하루 단위로 선두 등반을 교대하며 체력을 분배했다. 로프, 체인, 잠금장치, 튜브하강기, 무전기에서 배변봉투에 이르기까지 등반 장비 홀링 무게가 70kg에 육박하기 때문에 라스트(마지막 등반자)가 홀자에 실어 함께 홀링하게 했다. 암벽팀은 50m 이상의 수직크랙, 10m 이상의 킹스윙(King Swing) 등 험난한 지형들을 넘어가며 7월 9일 마침내 엘 캐피탄 더 노즈 정상 31피치, 900 m



최지효 학생이 엘캐피탄 직벽을 오르고 있다

바위 정상에 올랐다.

이들 산악대원들이 준비를 마치고 출발 전 한마디씩 적은 말들이 있다. 행정담당 김창곤 “할 수 있다!”, 식량담당 최지효 “헤헷”, 장비 담당 고예은 “귀찮아~”, 회장님으로 불리우는 정철의 대장 “그냥 하는 거지...” 의지의 서울대인들, 부상자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해냈다.

서재필 기념 재단 이끌며 필라델피아 한인사회에 큰 족적

정학량(약대 56) 박사님을 기리며

필라델피아의 정학량(약대 56) 동문이 지난 8월3일 별세했다.

정신과 의사였던 정 동문은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필라델피아 민주평통회장, 서재필기념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필라델피아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이같은 공을 인정받아 한국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 정학량 동문은 필라 해리티지 오피스 커미셔너로 있을 당시 서재필 박사의 생각을 필라델피아 역사유적으로 지정받게 하는데 앞장섰으며 서재필 기념재단의 회장, 이사장을 맡아 45년을 헌신하며 서재필 기념센터를 필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의료·봉사·장학기관으로 발전시켰다.

다음은 서재필 기념 재단의 최정수 회장이 8월5일 열린 장례식에서 읽은 조사를 간추린 것이다.

많은 분들이 필라델피아 한인 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지역사회 곳곳에 손길을 뻗으셨던 정 박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필립 자이손(서재필) 기념재단에 그분이 오랫동안 보여주신 헌신적인 기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 박사님의 재단에 대한 헌신은 길고도 일관되었으며,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1980년부터 45년 동안 헌신하셨습니다. 정 박사님의 특별한 단은 오랜 재임 기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단에서 회장과 이사장 두 직책을 모두 역임한 몇 안 되는 인물이었으며, 행정뿐 아니라 정신과 의사로서 직접 진료도 제공하셨습니다.

정 박사님의 너그러움은 직업적인 영역을 넘어서셨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용히 설립했고,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에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매



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제 직장에 잠깐 들르실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가면 그는 직접 모아둔 작은 지폐들이 가득 든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단순한 계좌 이체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생각하며 직접 모신 돈이었죠.

정신과 진료에서 은퇴하신 후에도, 그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면 앞으로 1년은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돕고자 하는 분이셨습니다.

정 박사님은 노스웨일스에 건립 중인 새 건물 프로젝트에도 매우 설렐 하셨습니다. 건물 이름조차 모르셨지만, 그저 기쁘고 11월 8일 열리는 재단 50주년 기념 갈라에 참석하기를 고대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마지막으로 그를 뵈었을 때, 건물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말씀드리자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50주년 기념 배지를 달아드렸고, 그는 기쁨에 빛나며 손으로 배지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 박사님, 45년간 변함없는 헌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50주년 기념행사에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비록 그날 우리와 함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날 저녁 당신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기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박사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노래와 가르침·미소로 빛난 삶

왕규현(의대 56) 선배님을 기리며

약 10여 년 전, 저희 가족과 친하게 지내며 이곳 은행에서 근무하시던 이웃 사모님께서 한 분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저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당시 왕규현 박사님의 사모님께서는 은행에 들르셨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인연이 이 저녁 식사로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왕 박사님은 개성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중 잠시 강화도로 피신하셨다가 졸지에 이산가족이 되었다는, 마치 영화 속에서나 들을 법한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그런 힘든 역경을 겪으신 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온화한 미소로 처음 만난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대해 주실 수 있는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화 중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왕 박사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깜짝 놀랐고, 박사님께서는 “한 명이 더 있다” 며 그 후배도 다음에 꼭 만나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권식 박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 제가 동문회에 나가게 되고, 지금은 지부장을 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권식 박사님은 추운 겨울을 힘들어하시는 왕 박사님 부부를 위해 작은 노래 모임을 시작하셨는데, 저희는 이를 ‘뜸부기 합창단’이라 불렀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이 모임에는 동문뿐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함께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식사와 노래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우리는 함께하는 즐거움과 커뮤니티의 소중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 미네소타 지부에서 오래 계시며 많은 도움을 주신 왕규현 선배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지부와 뜬부기 합창단에서는 조화로 애도를 표했고, 7월 모임에서는 박사님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왕규현 선배님께서는 196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60년 넘게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심장 전문의(Cardiologist)로 재직하시며 의과대학 ‘Best Professor’ 상을 14회나 수상하신 훌륭한 교육자이셨습니다. 근래에 남가주 라구나 우즈(Laguna Woods)로 이주하셨지만, 늘 미네소타 지부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박사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미네소타 지부에 장학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장학금은 왕 박사님과 가족들을 기억하며, 미네소타 지부의 학생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쉬시기를 바라며, 왕 박사님의 따뜻한 미소와 노래는 오래도록 저희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문성인(공대 88) 미네소타 지부장

산과 영화, 그리고 품격의 삶

이해영(공대 56) 동문을 추모하며

(고) 이해영(공대 전기공학 56) 동문은 경기중·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산악반에서 활동하며 산과 자연을 사랑했다. 유학 후에도 공대 산악반을 창설해 동문들과 암벽등반과 백패킹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영화에도 깊은 조예를 갖추어 영화반을 만들어 동문들의 영화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소니에서 엔지니어로 장기 근무 후 은퇴했다.

다음은 UCLA 유학 시절 고인을 만나 평생을 교우한 한효동(공대 58) 동문이 지난 7월 19일 치노힐스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읽은 조사를 간추린 것이다.

이해영 선배님은 제게 육친의 형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60여 년 전 UCLA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의지할 곳 없던 저 앞에 형은 언제나 먼저 와 계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말없는 배려로 제 두려움을 털어주셨고, “남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미국 생활을 해쳐나가라” 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삼형제 중 막내로 늘 형들에게 의지하며 자란 제게는 처음엔 서운한 말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저를 강하게 만든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선후배를 넘어선 동반자로, 인생의 기쁨과 무게를 함께 나누는 벗으로 걸어왔습니다. 형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분이었고, 일생을 산과 자연에 바치셨습니다.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도 산처럼 고요하고 우직했으며, LA 한인타운 ‘작가의 집’에서 이끈 영화 모임에서는 섬세한 감성과 지적 대화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형에게서 사람을 대하는 품격, 자연과 예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을 사랑하는 조용한 열정을 배웠습니다.

이별은 늘 갑작스럽지만, 형의 따뜻한 흔적을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산처럼 평안한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곳에서도 좋은 영화를 고르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진수(의대 56·워싱턴주) = 5월 17일 별세. 워싱턴주 동문들 7월27일 열린 추모식 참석.

■ 조만연(상대 58·남가주) = 8월 3일 별세. LA에서 CPA로 오래 활동한 고인은 남가주 문인사회에서 부부 수필가로 널리 알려졌다. 부인 김옥동 여사 역시 동문으로 사대 58학번 동기다. 부부는 지난 2008년 칠순기념으로 에세이집 ‘부부’를 펴냈다. 책에는 100여 편의 수필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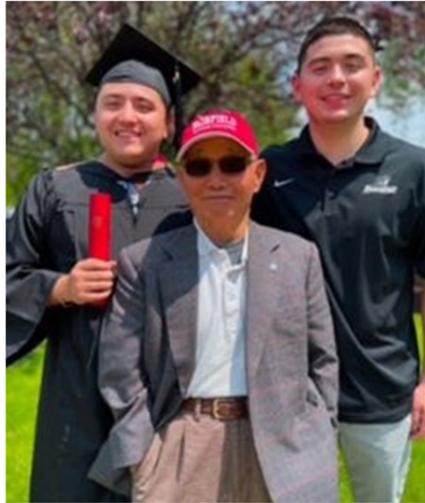
“고 김대식 동문, 연구 실험실 이어 받을 후배 찾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별세 소식
동문들, 업적 기리며 추모

고 김대식 동문(공대 52)의 추모식이 지난 7월 24일 고인의 자택 인근 호수가에서 있었다.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김대식 선배가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나 알게 되었고, 고인의 유해가 뿌러진 호숫가에서 추모 모임을 갖고 위대한 발명가이자 특히 보유자인 고인의 업적과 후세에 남긴 위대한 탐구 정신을 기리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추모 모임에 앞서 동문들은 고인의 연구실 및 실험실을 둘러보고 그 규모와 방대한 재료, 공구, 제작 기계 등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고인은 평소 본인의 연령을 감안하여 자신의 작업과 결과물을 이어받아 발전시킬 후배를 찾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지난 2025년 1월 20일 별세했다.

고인의 실험실의 제작 물건, 다수의 공작기계 및 재료, 연구 내용 등을 이



고 김대식 박사와 손주들.



고 김대식 동문 추모 모임에는 박정부(공대 60), 이민용(문리대 60), 오세경(약대 61), 정태영(문리대 71), 이정수(공대 71), 원덕수(공대 72) 동문이 참석했다.

어받는데 관심이나 흥미가 계신 동문이나 사람들은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에 연락하면 된다.

고 김대식 동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1954년 미국으로 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저지의 에소(Esso) 리

서지에서 근무했고 콜드 크랭킹 시뮬레이터(cold-cranking simulator)를 비롯해 무공해 엔진, 친환경 도장 시스템, 차량용 장애인 리프트, 음주운전 방지 장치, 그리고 최근의 ‘플라잉카’ 까지 12개가 넘는 발명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김대식 동문은 친절하며, 유머러스하고 관대한 사람이었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는 ‘버키(Buckeye)’ 팬이었다.

글= 정태영(문리대 71)

공구·재료로 가득 찬 실험실...연구에 미친 삶이었다

고 김대식 선배를 추모하며

나는 ‘천재(genius)’란 말을 가끔 쓴다. 무슨 기준을 갖고 쓰는 것은 아니다. 그냥 내가 느낄 때 “아, 저 사람 천재구나”, 또는 “천재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혼자 그렇게 중얼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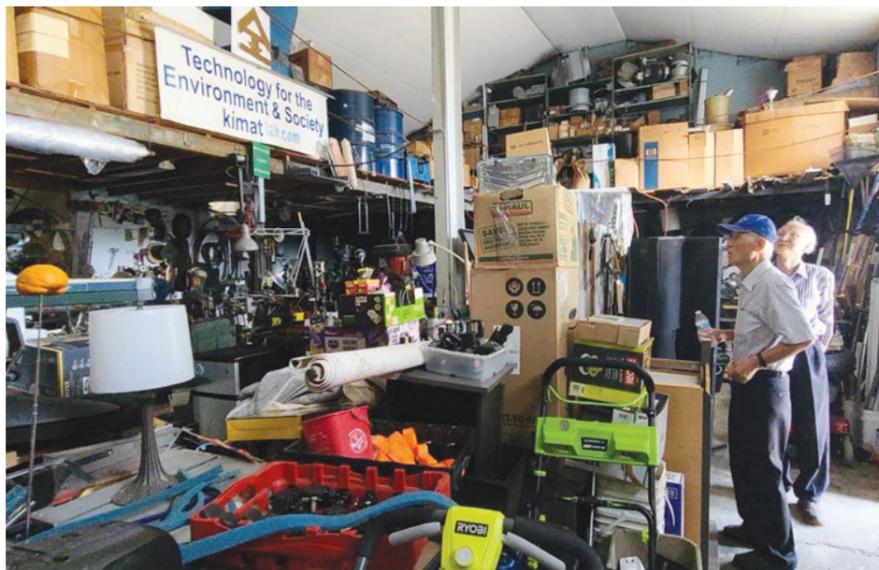
사실 천재를 IQ가 얼마 이상일 때라고 기준하거나, 시험 성적이 얼마일 때 기준 삼는 일은 없는 것 같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천재라고 정의 내리지도 않는 것 같다.

존 내시(John Forbes Nash Jr.)의 스승이 그에 대한 소개서를 다른 교수에게 써 주었을 때, 단 한 마디 “He is a genius.”라고 적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버트런드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천재’라는 것을 즉각 알아보았다고 한다. 후일 러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좀 이상했다(queer).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천재인지, 아니면 그냥 이상한 놈인지. 캠프리지 대학에서의 첫 학기가 끝나고 그가 나에게 와서 물었다. ‘제가 멍청한 놈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멍청하다면 비행기 조종사가 될 것입니다. 멍청하지 않다면 철학자가 될 겁니다.’ 나는 방학 동안 철학에 관한 글을 하나 써 오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멍청한지 아닌지 말해 주겠다’고 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자 그는 글을 하나 가져왔다. 나는 첫 문장만 읽고 그에게 말했다. ‘비행기 조종사 되지 마라.’”

러셀은 친구에게 “비트겐슈타인을 알게 된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정신적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그를 ‘완벽한 천재의 전형’으로 평가했다.



고 김대식 동문의 실험실 모습.

나는 천재의 기준을 나 나름대로 하나 정하고 있다. ‘미침’이다. 한문에서 말하는 광기(狂氣)와는 좀 다르다. 내가 말하는 ‘미침’은 일종의 몰두이다. 어느 일상인과는 다른 몰두이다.

즉, 하나의 일에 흠뻑 빠져, 다른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밥만 먹고 나면 그 일에 몰두하는 경우다. 하루 24시간을 온통 그 일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잠도 거기서 자고, 먹기도 거기서 먹고...

“미쳤다!”
고 김대식 선배의 연구실 겸 실험실을 둘러보고 난 후의 소감이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천재(genius) 중에는 미치광이가 많다. 미치지 않고서는 집중할 수 없다. 인생의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천재에게는 하루가 너무 짧을 것이다. 그래서 미쳐야 한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야 한다.

지난 7월 24일, 김대식 선배의 추모 모임 전, 고인의 연구 실험실을 둘러 보았다. 김대식 선배의 실험실을 방문

하기 전 나의 상상은 이랬다. 낡아 빠진 물건들, 너저분한 쓰레기 같은 오래된 공구들, 먼지가 내려앉아 손으로 쓸어내리면 금세 손끝에 묻는 회색 먼지, 이리저리 뒤엎킨 바케스니 잠동사니들, 거미줄이 길게 늘어진 폐가의 창고 같은 모습들이 내가 상상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험실이자 발명품 제작소에 들어서니 순간, 나의 예상은 일순간에 바뀌었다. 각종 기구, 제작 공구, 부품, 재료, 연장 등이 실험실을 가득 채워 비좁기까지 했으나, 많은 것들이 윤이 나고 새것 같았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일하시고, 만드시고, 연구하신 체취가 남아 있었다.

연구실은 마치 에이스 하드웨어(Ace Hardware) 가게에 들어선 것 같았다. 수많은 공구와 재료, 나사 등이 벽 선반과 보관함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이 있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옆방에 들어서니, 또 하나의 에이스 하드웨어 같은 실험실이 나타났다. 그곳 또한 각종 공구와 재료들로 꽉 차 있었다. 진짜 작은 에이스 스토어 규모였다.

“이 많은 공구와 재료 등을 사시기 위해 돈을 엄청 많이 쓰셨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하시고 나서 평생을 이토록 이런 일에 바치셨으니, 공구와 재료 값만 해도 집 한 채는 사고도 남았을 것으로 보였다. 사모님께 꾸중 많이 들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느 부인 같았으면 가만있지 않으셨을 것 같다. “헛돈 쓰지 말라”며.

옆에 있던 한 동문이 들은 이야기를 해 준다.

“김 박사님은 동창회 모임 등 외부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험실에서 사셨어요. 잠도 실험실에서 자고, 식사도 실험실에서 하시고, 따님이 식사를 실험실로 가져다주셨어요.”

아인슈타인도 밥만 먹고 나면 자기 방으로 쪼르르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의 부인 밀레바와 사이가 좋지 않아 결국 이혼까지 했다. (아이들과 부인을 두고, 밥만 먹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방콕’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물건으로 가득 차고, 각종 쇠붙이로 가득한 그 차가운 금속들로 가득 찬 좁은 통로에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셨다니... 철공소처럼 금속 파편과 금속 찌꺼기, 그리고 구리스로 찌든 공작기계 더미 속에서 자고 먹고 하셨다니...

이렇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처럼 몰두할 수가 있었는가? 빌 게이츠도 고등학교 때 컴퓨터에 빠져 하루 종일 그것만 했다고 하지 않는가?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천재와 미치광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극히 일부분만 운 좋게 남아 이름을 날리고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무명의 천재들이 인류 문명에 기여한 금자탑은 깊고도 높다.

김대식 선배는 생전에 자신의 실험실과 연구 성과, 특히 내용의 전수 및 계승자를 무척 찾으셨다. 그러나 끝내 찾지 못하시고 별세하셨다.

글= 정태영(문리대 71)

삶의 향기, 이야기들



김지영
(사대 69·남가주)

틈만 있으면 엄마의 궤도를 벗어나려 했다. 끝내 아들은 먼 나라로 가버렸다. 엄마를 홀로 고향에 남겨두고. 엄마의 마지막 열흘, 아들은 엄마 곁에 있다. 엄마의 마지막 한 시간 아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는 소통할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많은 이야기가 스쳐간다. 사바세계에서 모자의 인연으로 살아온 사연들, 구비 구비에 남아있는 기쁨과 아픔의 기억...

중환자실 계기관에 엄마의 혈압이 0으로 떨어진다. 엄마의 손이 차가워진다. 아들은 엄마를 부른다. “엄마 ~~~”

당직 의사가 와서 엄숙하게 선언한다. “정종숙님은 2025년 7월6일 오전 3시13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엄마의 ‘마음’은 코끝에 있었을 터이다. 날숨 다음에 들숨... 일생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이 순서를 유지하는 일이 그 찰나의 가장 큰 과제. 마음은 그 일에 매달려 있었으리라. 다시 숨을 들이마실 수 있

엄마가 돌아 가셨다. 발은 날숨 그리고... 끝. 93년 이생에서의 머무름은 아들의 기억으로만 남게 된다. 엄마의 일생, 당신의 말씀대로 “손톱으로 바위를 긁는 듯 살아온 세월”이었다.

엄마와 아들은 74년 동안 이생에서 같이 걸었다. 엄마는 내내 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걱정하셨고, 아들은

엄마가 가셨다

는 육체의 힘이 소진된 상태. 마음은 그렇게 육체를 떠난다.

그 마음은 그냥 사라졌을까? 어디로 갔을까? 엄마의 마음이 마지막 지각한 것은 아들의 마음이었을 터. 아들의 흔적을 품은 그 마음은 한숨 기운이 되어 이생의 경계를 넘어간다. 엄마가 막 떠난 이생 사바 세계는 “참고 견뎌야 하는 땅, 감인토(堪忍土).”

엄마의 다음 생은 아마타불의 서방정토 극락이기를 빈다.

하얀 천으로 얼굴을 덮은 엄마의 주검은 장례예식장으로 옮겨진다. 삼일장, 만 이틀 동안의 문상. 형제 자매가 아무도 없는, 40여 년을 외국에서 살던 아들이 빈소를 지켰다. 그리 쓸쓸하지 않았다. 오래된 인연들, 공주 지역의 글 쓰는 이들, 그리고 아들의 사촌 형제들이 아들을 위로한다.

셋째 날 아침 발인. 엄마는 관속에 누워 내려온 화장장으로 옮겨졌다. 내려원의 의미는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의 순 우리말이라고 한다. 4번 화로, 엄마의 관이 보인다.

커튼이 내려진다. 한 시간 반 후에 다시 커튼이 올라간다. 관이 있던 자리가 텅하다. 바닥에 하얀 뼈 조각만.

“곱게 만들어 드릴까요?” 분쇄기를 거쳐서 고운 뿔가루, 진공 포장되어 작은 나무 상자 유골함에 담긴다. 하얀 보자기에 쌓인 아직 따듯한 유골함을 아들이 받는다.

아들은 69년 전 또 하나의 아버지의 유골함을 받은 기억을 한다. 군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는 4년 후에야 유골로 고향에 돌아왔다. 엄마는 아버지를 묻기 전에 유골함을 열어보셨다. 그때 본 아버지는 하얀 뼈 조각이었다.

엄마를 대전 국립묘지 현충에 모신다. 먼저 거기에 계신 아버님 곁에 안장. 73년 전 26살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90이 넘는 엄마가 그렇게 다시 만난다. 육신을 다 버리고 마음만 만날 테니 나이는 문제가 아니겠지.

아들과 아들의 아들 돌이서 엄마 삼우제를 지낸다. 그날 아들은 미국으로, 아들의 아들은 다른 나라로 떠난다.

동문 시




오세경
(약대 61·뉴잉글랜드)

인생(人生)은...

인생(人生)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것
빈손 들고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신(神)이 창조하신 무대 위에 와서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자작극(自作劇)을 연출하고는 때가 되면 소리없이 사라지는 것

죽음은 인간이 피조물(被造物)일뿐이라는 것을 배우게한다.
그러나, 인생(人生)이 아니었으면, 창조주의 위대함도, 생명의 아름다움도 인지할 수 없었을지니
인생(人生)은 신(神)이 인간에게 부여한 잠정적(暫定的)인 특혜(特惠)였다.

어느날, 천상에서 나팔을 불면,
지하에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 화답할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사라진 영혼은 은하수의 별구름이 되어 주(主)와 함께 우주를 운행하고 있을까

동문 시



정홍택
(상대 61·필라델피아)

멍 때리는 낮

하릴이 없다
장가에 눌러 앉아 하늘을 본다
저 넓은 운동장에 흰구름만 노닌다
멍 때리는 오후

구름이 노잔다
쪽구름 꼬물꼬물 장난을 친다
앗, 하얀 생쥐되어 하늘 끝을 달린다

그 뒤로 회색 구름 꾸물꾸물 탈 벗어
고양이가 되었네
앗, 하얀 생쥐 잡으려 뒤를 쫓는다

그 뒤로 다가오는 검은 구름, 먹구름
미친개 되어
앗, 고양이 쫓는다

쫓기는 하얀 생쥐
누구에게 쫓기나
고양이는 생쥐 먹고
미친개에 먹혔구나

별안간
광풍바람, 왕소나기 천지를 진동하니
세상은 깜깜하고 가로등도 꺼졌구나
아-아 누구의 비명인가
번쩍번쩍 우르릉 광광!
오늘도
얼마나 많은 영혼, 하늘은 불렀을까

‘김일성 별장’으로 불리는 셔우드 홀의 화진포성

단상과 사유



이회백
(의대 55 입학·시애틀)



휴전선 근방 화진포에 있는 셔우드 홀의 집. 김일성이 잠시 머물러 '김일성 별장'으로 불린다.

휴전선 근방 화진포에 가면 ‘김일성 별장’으로 불리는 돌집이 있다. 근처에는 이승만 별장과 이기붕 별장도 있어 일종의 관광지가 되어 있다. 2011년 졸업 50주년 기념 동기 동창회를 계기로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38선 이북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별장으로 사용한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 집은 원래 ‘화진포 성(Hwajinpo Castle)’이라 불렸고, 원래 주인은 셔우드 홀(Sherwood Hall)과 마리안 홀(Marian Hall)의 사 부부의 별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내력을 알아보면 이렇다. 셔우드 홀의 삶은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점철된 여정이었다. 그의 부모는 의료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이다. 어머니 로제타는 1890년 서울에 도착해 여성 의료 교육을 시작했다. 이듬해 아버지 윌리엄도 합류하여, 1892년 두 사람은 한국에서 최초로 서양인끼리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평양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며,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에게 의술과 신앙을 전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선교 활동은 일시 중단되었고, 가족은 서울로 철수했다. 그러나 윌리엄은 부상자를 치료하러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다가 과로와 장질부사로 서울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이때 그의 아들 셔우드는 1893년생으로 겨우 두 살이었다.

셔우드는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이후 캐나다에서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다. 그는 아내 마리안(Marian)과 함께 1926년 한국에 돌아와 부모의 뜻을 이어 의료 선교에 헌신했다.

그가 중점적으로 활동한 분야는 결핵 퇴치였다. 해주에 결핵

요양소를 설립하고,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쉴을 발행한 인물도 바로 셔우드 홀이었다. 그는 미국에서 이 쉴 운동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도 가능하다고 믿고 실행에 옮겼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그의 확신과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결핵은 당시 한국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전 세계 인구 20명 중 1명이 결핵 환자였지만, 한국은 무려 5명 중 1명이 환자일 정도였다. 셔우드가 결핵에 평생을 바치게 된 계기는 어릴 적 친하게 지낸 김점동(에스더 박) 여의사의 죽음이었다.

로제타 홀의 손에 이끌려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던 그녀는, 10년 후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충격은 셔우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결핵을 평생의 적으로 삼았다.

그가 해주에 요양소를 세울 때 수많은 장벽이 있었다. 자금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결핵 환자가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주민들의 반대도 거셌다. “우리 동네 근처에 마약 중독자 치료소나 형무소가 들어서는 걸 반대하듯이” 주민들은 결핵 환자 수용 시설을 꺼려했다.

토지 소유자들도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거나, 매각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나 셔우드는 설득과 인내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요양소를 완성했다.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1930년대 후반,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선교사들을 스파이로 간주하고 탄압했다. 1940년,

미국 감리교 선교부는 선교사들에게 철수를 권고했고, 셔우드는 미국행 배를 기다리던 중 선교 본부로부터 인도로 가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를 수락하고, 미국 대신 인도로 향했다.

그곳에서도 그는 1963년까지 결핵 퇴치 활동을 이어갔다. 만약 일본의 압박이 없었다면, 그는 23년 더 한국을 위해 봉사했을 것이다.

화진포의 ‘Castle’, 그리고 헌신의 기억

셔우드와 마리안은 원산 근교에 작은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37년, 일본이 원산 해안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은 철거 명령을 받았다. 대신 일본 당국은 새로운 터를 지정해 주었는데, 이곳이 바로 바다와 호수가 동시에 보이는 화진포 언덕이었다.

셔우드는 이곳의 풍경이 스위스의 로잔 호수와 닮았다고 회상했다.

이 무렵 그는 독일계 러시아 망명 건축가 헤어 베버(Herr Weber)를 만나 화진포에 새 거처를 지었다. 본래 셔우드는 오막살이 같은 작은 집을 원했지만, 베버는 라인 강가의 성을 연상시키는 훌륭한 건물을 지어 버렸다. 완공 후 처음 그 집을 본 셔우드는 충격을 받았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던 그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에 빠졌다. 다행히 평양에 소유하고 있던 땅에 광산회사가 관심을 보여 이를 매각해 공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 집은 몇 년간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화진포가 북한 지역이 되면서 이 별장은 몰수되었고, 이

후 김일성이 사용한 사실 때문에 ‘김일성 별장’이라 불리게 되었다.

우리가 소위 ‘해방’을 맞은 것은 1945년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된 해는 1948년이며, 한국전쟁이 발발한 해는 1950년이다. 따라서 김일성이 화진포에 있는 그 성에 와서 머물렀다 하더라도, 해방 이후 3~5년 사이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성을 ‘김일성 별장’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나는 묻고 싶다.

지금의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Arlington National Cemetery)의 원래 소유자는 로버트 리(Robert E. Lee)였다. 1861~1865년 남북전쟁(Civil War) 중 연방정부(북부)가 작전지로 사용하다가 전사자의 묘지가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연방정부가 무단 점거(squatter)한 셈이다. 물론 전쟁 중에 로버트 리가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할 처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난 뒤 후손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들리는 말로는, 그들(원고)이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어쨌든 연방정부는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로버트 리 묘지(Robert Lee Cemetery)’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령, 일제 말기 마지막 9대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가 이 성을 별장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아베 노부유키 별장’이라 불러야 하는가? ‘김일성 별장’이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셔우드 홀 성’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일제가 강제 징발한 이 성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일제가 몰수한 상태로 남아 있다면, 그 후손에게서 매입하여 ‘셔우드 홀 기념관’으로 만들어 우리 후손들이 그들의 공적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63년 캐나다로 돌아간 셔우드와 마리안 홀은 1984년, 91세와 88세의 나이에 한국결핵협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다. 1991년, 98세의 생애를 마친 닥터 셔우드는 자신의 출생지인 한국에 묻어 달라는 유언에 따라 이장되어 양화진 가족묘지에 잠들어 있다. 두 세대에 걸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이들의 인간애에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랴.

원고모집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애와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contact@snuaa.org로 보내주시십시오.

contact@snuaa.org

시와 선율이 만나는 자리, 한국 가곡의 미학



심희진(음대 90)
(소프라노·필라델피아)

이 세상 대부분의 노래는 가사와 음악이 만나 태어난다. 라흐마니노프의 「Vocalise」 처럼 ‘아’ 모음 하나로 구성된 예외적인 곡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래에는 가사가 있으며, 그 가사는 시인 경우가 많다.

작곡가들은 마음에 드는 시를 만났을 때 영감을 얻어 곡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반대로 선율을 먼저 구상한 후 가사를 붙이는 경우는 드물다. 이처럼 노래에서 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

이번에 한국 가곡만으로 독창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사로

쓰인 시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악보 속 가사로만 대하던 시를 직접 찾아 읽고 낭송해보는 과정에서, 시어의 정서와 언어의 깊이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시가 가진 행과 연의 형식에서도 고유의 아름다움이 드러났고, 음악이 없어도 우리 말 자체가 지닌 섬세함과 울림을 새롭게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공연 프로그램에도 가사를 별지로 제작해 삽입했다. 관객들이 우리말 가사의 의미를 음미하며 곡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관객들이 공연 중 어둠 속에서도 가사를 따라 읽었고, 공연 후 집에서 다시 꺼내 읽었다는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다.

한국 가곡은 가사뿐 아니라 선율 면에서도 매우 아름답고, 한국인의 정서를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이 많다. 익숙한 가곡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사이에 작곡된 오래된 곡들이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가곡들도 활발히 창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번 무대에서도 「가고파」나 「꽃구름 속에」 처럼 1930~40년대에 쓰인 곡들과, 「여름밤의 추억」이나 「가을의 노래」 처럼 21세기에 작곡된 곡들을 함께 소개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가곡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이번 <고향의 사계> 독창회는 전곡을 한국 가곡으로 구성해보았다. 그 결과 청중들의 반응은 훨씬 뜨거웠다. 모국어로 부르는 노래는 이해도 쉬울 뿐 아니라, 고향과의 감정적 연결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공연 이후 전해진 감상평은 평소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다양했으며, 각자가 인상 깊게 느낀 곡도 저마다 달랐다. 연주자로서 이러한 반응은 매우 감사하고 뜻깊은 경험이었다.

또한 “우리 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시와 음악 모두를 향유할 여유를 갖기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한국어의 미학을 느끼는 시간이었

다는 점에서 이번 무대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그 순간만큼은 노래가 언어와 감정, 그리고 기억을 매개하며 사람들과 깊은 울림을 나누는 역할을 해주었다.

이처럼 한국 가곡은 언어와 선율의 조화를 통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기억을 잇는 ‘역간 문화’ (diasporic or intergenerational cultural connection)의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음악은 시간 예술이기에, 공연이 끝나면 모든 것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지나가지만, 그 순간의 진심과 감동은 오래 남는다. 필자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곡을 배우고, 다음 무대를 꿈꾸게 된다.



심희진 동문의 한국 가곡 독창회를 찾은 필라델피아 동문들.

헌정 질서 회복... 세계정치학계가 주목한 ‘한국 정치’



김의영(정치학과 80)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25년 여름,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 정치학계의 중심이 됐다.

1997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정치학회(IPSA) 총회를 개최한 이후, 약 30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린 서울총회는 아시아 최초의 ‘두 번째 개최국’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국 정치학의 현재와 미래를 세계에 선명히 각인시킨 자리였다.

일단 규모 면에서 역대급이었다. 지난 7월 12일에서 16일까지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총회에는 전 세계 95개국에서 온 3370명의 정치학자가 776개의 패널을 조직하여 305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IPSA 총회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우선, 한국의 국력과 서울의 매력에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행의 시대에, 작년 12월 3일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보여준 저력, 즉 시민의 힘으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 낸 우리 민주주의의 ‘굳건한 힘(resilience)’이 큰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지난 7월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모습.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번 총회는 질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도약이었다. 첫째,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학의 학문적 수월성과 리더십을 전 세계 정치학계에 널리 알린 기회가 됐다. 한국 조직위원회(LOC)는 19개의 트랙, 108개의 패널을 독립적으로 기획·조직하며, 학문적 깊이와 다양성 모두를 담아냈다. 한국은 단지 개최국을 넘어 가장 큰 규모의 대표단을 꾸렸으며, 387명의 한국 정치학자가 주요 패널과 기조 세션에 대거 참여하여 한국 정치학의 성과를 세계 무대에 자신 있게 선보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권형기 교수가 아시아 최초로 권위 있는 칼도이치 상(Karl Deutsch Award)을 받았다.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는 IPSA 최초로, 아니 어쩌면 세계 학계 최초로, 정치인의 이름을 딴 상인 ‘김대중상(Kim Dae-jung Award)’을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철학적 정치가(Philosopher Statesman)’인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상이다. 학문적 수월성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세계적인 대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캐나다 맥길(McGill) 대학의 타자 바키 폴(T.V. Paul) 교수가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제 우리 정치학계가 우리의 기준으로 세계적인 상을 제정해 외국 학자에게 수여한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 학계가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는 뜻의 표현이었다.

둘째, 서울총회는 학문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된 시의적이고 현실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실천적 공간이기도 했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권위주의에 맞서기(Resisting Autocratization in Polarized Societies)”라는 주제 아래, 세계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우선 가장 눈에 띄고 언론의 조명을 받은 건 첫째 날, 개회식 대통령 연설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K-민주주의(K-democracy) 기조연설은 한국 민주주의의 고유한 특성과 국제적 기여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며, 큰 관심과 호응을 끌어냈다. 둘째 날, 김대중 상 수상식의 김민석 국무총리 연설과 라운드테이블, 셋째 날 노태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설 및 선거 신뢰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그리고 마지막 날, 폐회식 우원식 국회의장 연설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할에 대한 세계 주요 정치학회장 라운드테이블 등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과 역할을 논하는 각종 고위급 세션이 조직됐다.

서울대 유홍림 총장이 주도한 패널로서, 세계 각국 고등교육기관과 정치학회 지도자들이 모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학계의 역할을 주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 또한 이번 총회가 단지 학문 발표의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줬다.

셋째, 이번 서울총회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함께 웃고, 토론하고,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기도 했다.

서울대 음대 국악과 김승근 교수의 도움으로 개막식의 국립무용단 공연, 아시아의 밤(Asian Night) 행사, 국악 퓨전 음악과 어우러진 폐회식 만찬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수준의 문화 행사를 준비했으며 이번 세계대회를 단순한 학술 행사 이상의 기억으로 남게 했다.

서울에서의 IPSA 총회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한국 정치학은 이번 총회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세계에 다시금 확인시켰고, 향후 세계 민주주의의 회복과 정치학의 진보를 위한 주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준비를 마쳤다.

르완다에서 ‘한강의 기적’ 한국의 옛모습을 보다



권준희(가정대 87)

지난 7월, 나는 두 번째로 르완다를 찾았다. 테네시 대학교와 르완다의 산업 리더, 지역사회 개발 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지난해의 짧은 답사에 이어 이번에는 르완다 개발위원회, 교육부, Visit Rwanda, 르완다 Convention Bureau, 르완다 폴리테크닉 대학교, Marriott 호텔, 마스터카드 재단 등 정부와 교육, 산업 현장을 두루 다니며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여정이었다. 르완다는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간직한 나라다. 1994년, 불과 100일 동안(4월 - 7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투치족에 대한 집단학살’ (Genocide against Tutsi)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정치 이념의 차이로 남북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싸운 전쟁이었다면, 르완다의 집단학살은 같은 동네, 같은 마을 안에서 살던 두 민족 집단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다가 맞닥뜨린 참상이었기에, 학살 이후에도 다시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상상

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화해와 회복의 길은 더욱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정부가 주도한 조직적 학살은 나라 곳곳을 참혹한 현장으로 만들었고, 그 흔적은 지금도 수많은 추모관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방문 때부터 나는 르완다 사람들에게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 아마도 1960~70년대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를 포대기에 짊어지고, 머리 위에 큰 짐을 이고, 또 양손에는 더 많은 짐을 들고 걷어가는 여인들. 자전거에 사탕수수나 물통을 가득 싣고 가파른 언덕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남자들. 물을 얻기 위해 길게 줄 세워 놓은 수많은 물통들. 그것은 곧 전후 한국의 마을 풍경이었고, 내 조부모 세대가 겪었던 일상이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들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우리 선조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방문은 지난번보다 훨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르완다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또 우리가 그들의 발전하는 노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자 했다. 수많은 미팅과 발표 속에서 확인한 르완다는 이미 변화의 궤도에 올라 있었다. 기술, 관광, 인공지능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내세우며, 2002년 1인당 국민소득이 90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2020년에는 1,140달러로 도약했고, 이제는 2050년까지 13,000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특히 가장 마음에 남은 순간은 교육 부를 방문했을 때였다. 그곳에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적은 새마을 운동 구상이 영어로 번역되어 전시된 것을 보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지만, 그가 남긴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은 한국을 빈곤에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 르완다가 그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

Tourism Management)와의 협력 가능성을 두고 열띤 대화가 오갔다. 며칠 동안 바쁘게 일정을 소화한 후, 우리 일행은 Akagera 사파리로 향했다. 자동차를 타고 야생 동물들의 삶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일상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르완다에서의 시간은 내 안에 두 가



권준희 동문이 방문한 르완다는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을 떠올려 친근함을 안겨줬다.

심을 안겨주었다.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희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키갈리에서의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환대와 관광 분야의 리더들, 주요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산업 중심 교육과 인력 개발의 미래를 깊이 논의했다. 특히 내가 몸담고 있는 학과(Department of Retail, Hospitality, and

지 올림을 남겼다. 하나는 한국의 여정이 다른 이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자부심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역량을 르완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보태야겠다는 다짐이었다. 우리나라가 이룬 ‘한강의 기적’이 그러했듯, 오늘의 르완다 역시 자신들의 노력과 비전으로 새로운 기적을 써 내려갈 수 있으리라, 나는 믿는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12번째 사나이’가 만든 기적

마이크를 잡은 가너린 손이 심하게 떨렸다. “대체, ‘12번째 사나이(the 12th Man)’, 그들은 어디 있나요?” 울먹이는 목소리에 수만 명의 관중이 숙연해졌다. 15년 전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제로 있었던 장면이다.

그 주인공은 델리아 스미스, 노리치 시티의 구단주다. 전반전 내내 강호 맨체스터 시티에 밀려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는 팀을 보다 못한 스미스는 하프타임에 마이크를 잡았다.

축구는 11명이 뛰는 경기지만, ‘12번째 사나이’가 있다. 바로 서포터즈, 팬을 뜻한다. 선수들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응원이 없다면 승리하기 어려울 터. 스미스는 관중석의 응원 열기가 부족해 선수들이 힘을 내지 못한다며 분발을 호소했다.

“제발, ‘12번째 사나이들’이 힘 좀 보태주세요!” 그녀의 읊소가 통했을까. 후반전 휘슬이 울리자마자 응원이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전반전 몇 골을 내주

며 패색이 짙었던 노리치 시티는 끝내 역전기적을 만들어냈다. 스미스에게 ‘12번째 여인’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유럽이나 중남미 프로리그에서는 등번호 12번을 단 선수를 거의 볼 수 없다. 대부분의 구단이 ‘12번째 사나이’를 기리기 위해 12번을 영구결번(retired number)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펠레, 마라도나, 메시가 모두 10번을 달았던 것도 이런 이유다.

그렇다면 ‘12번째 사나이’의 기원은 어디일까. 의외로 프리미어리그가 아닌 미국 풋볼에서 시작됐다. 풋볼 역사 11명이 뛰는 경기. 100여 년 전 텍사스 A&M대학이 처음 이 말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이 대학 스타디움에는 ‘12th Man’이라는 대형 사인이 걸려 있다. 이 전통이 유럽으로 건너가 축구 문화에 뿌리내린 것이다.

‘12번째 사나이’는 이처럼 심리적으로 막강한 효과를 발휘한다. 홈팀 선수들에게는 사기를 북돋우는 보약이지만, 원정팀에는 큰 압박이 된다. 심판도 예외가 아니다. 홈팀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면 쏟아지는 야유에 위



축되기 쉽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홈팀은 관중 1만 명당 0.1골의 추가 득점 효과를 얻는다. 지난 20년간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분석한 결과다.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에서도 팬의 힘은 절대적이다. 1994년 월드컵은 사상 처음 ‘축구의 불모지’ 미국에서 열렸다. 개막 몇 달 전, 워싱턴 포스트가 여론조사를 해보니

미국인의 70%가 월드컵을 여자 축구로만 알고 있었다. 당시 미국 여자대표팀이 세계 최강이었기에 생긴 해프닝이었다.

미국 축구의 인기는 리오넬 메시의 메이저리그사커(MLS) 진출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3년 전 메시가 마이애미에 입단하자 관중석은 연일 매진됐고 티켓값은 수백 달러로 치솟았다. 여기에 최근 손흥민(사진)이 LAFC에 합류하며 최고의 흥행 카드로 떠올랐다. 동부에는 메시, 서부에는 ‘쏘니.’ 두 스타는 마치 미국 축구 부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파견된 사절단 같았다.

지난 8월 27일, 손흥민은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홈경기에서 시구를 맡았다. 5만여 ‘12번째 사나이’가 쏘니를 외치며 응원한 덕분에 다저스는 난적 레즈를 꺾고 월드시리즈 진출에 한 걸음 다가갔다.

내년에는 미국에서 월드컵이 또 한번 열린다. 메시와 손흥민의 맞대결이 성사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뜨겁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캠페인>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 뉴욕-조상근 (법대69)
- 워싱턴주-故고광선 (공대57)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 조지아-주중광 (약대 60)
- 조지아-허지영 (문리 66)

골드이사 (\$10,000 이상)

-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 남가주-김경숙 (간호대 68)
- 남가주-김일영 (의대65)
- 남가주-김보연 (간호대 63)
- 남가주-노명호 (공대 61)
- 남가주-박중수 (수의 58)
- 남가주-박창규 (약대 59)
- 남가주-서동영 (사대 60)
- 남가주-서치원 (공대 69)
- 남가주-성낙호 (치대 63)
- 남가주-심보성 (약대 61)
- 남가주-이기준 (법대 54)
- 남가주-이병준 (상대 55)
- 남가주-이홍표 (의대 58)
- 남가주-벤자민 홍 (문리대 53)
- 남가주-하귀환 (공대 66)
- 남가주-한귀희 (미대 68)
- 남가주-한홍택 (공대 60)
- 남가주-홍수웅 (의대 59)
- 남가주-홍훈정 (음대 70)
- 네바다-정상진 (상대 59)
- 뉴욕-강에드워드 (사대 60)
- 뉴욕-오인석 (법대 58)
- 뉴욕-이정자 (간호대 59)
- 뉴잉글랜드-박영철 (농대 64)
- 뉴잉글랜드-오세경 (약61)
- 뉴잉글랜드-윤상래 (수의대 62)
- 뉴잉글랜드-정선주 (간호 68)
- 뉴잉글랜드-최홍균 (공대 69)
- 미시간-박용화 (의대 52)
- 북가주-김정희 (음대 56)
- 북가주-민병곤 (공대 65)
- 북가주-전혜경 (문리 67)
- 샌디에고-이면기 (공대 64)

- 시카고-이용락 (공대 48)
- 시카고-조규승 (문리 72)
- 워싱턴주-김재훈 (공대 72)
- 워싱턴DC-이태영 (법대 60)
- 조지아-김현희 (간호대 59)
- 커네티컷-김창수 (의대 54)
- 필라델피아-김영우 (공대 55)
- 필라델피아-손재옥 (가정77)
- 필라델피아-이만택 (의대 52)
- 하트랜드-이상강 (의대 70)
- 하트랜드-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 이상)

- 남가주- 김원경 (약대 59)
- 남가주-권봉성 (문리대 64)
- 남가주-김병연 (공대 68)
- 남가주-박인창 (농대 65)
- 남가주-이종도 (공대 66)
- 남가주-이종묘 (간호대 69)
- 남가주-이호진 (간호대 74)
- 남가주-정임현 (간호대 72)
- 남가주-정재훈 (공대 64)
- 뉴욕-김현중 (공대 63)
- 미네소타-황호숙 (사대 65)
- 북가주-강재호 (상대 57)
- 북가주-박순희 (의대 60)
- 북가주-남광순 (음대 64)
- 북가주-차재철 (의대 62)
- 루지애나-강영빈 (문리대 58)
- 워싱턴 DC-남욱현 (경영대 84)
- 워싱턴DC-배성호 (의대 65)
- 워싱턴DC-최재귀 (미대 63)
- 조지아-김경숙 (사대 64)
- 조지아-김태형 (의대 57)
- 조지아-임수임 (공대 62)
- 필라델피아-신의석 (공대 53)

종신이사 (\$3,000 이상)

- 남가주
- 故노재성 (법대 58)
- 故서영석 (의대 55)
- 故오재인 (치대 33)
- 故윤낙승 (의대 60)
- 강신용 (사대 73)

- 곽용길 (문리대 59)
- 권기홍 (의대 60)
- 김광은 (음대 56)
- 김기형 (상대 75)
- 김대중 (의대 70)
- 김동훈 (의대 71)
- 김보연 (간호대 63)
- 김상찬 (문리 65)
- 김성호 (법대 64)
- 김수영 (사대 57)
- 김자성 (의대 79)
- 김재영 (농대 62)
- 김정빈 (공대 66)
- 나두섭 (의대 66)
- 나용화 (생과대 79)
- 류재풍 (법대 60)
- 박명근 (상대 63)
- 박용필 (문리대 66)
- 박원준 (공대 53)
- 박윤수 (문리대 48)
- 방명진 (공대 73)
- 백길영 (의대 58)
- 백만일 (공대 64)
- 신건호 (법대 53)
- 신경자 (사대 60)
- 신영찬 (의대 62)
- 심상은 (상대 54)
- 안병일 (의대 63)
- 오홍조 (치대 56)
- 이근원 (공대 67)
- 이명선 (상대 58)
- 이성숙 (공대 56)
- 이세열 (사대 57)
- 이승훈 (상대 74)
- 이채진 (문리대 55)
- 이형광 (상대 61)
- 임낙균 (약대 64)
- 임용오 (의대 57)
- 전경배 (의대 69)
- 전희택 (의대 58)
- 정균희 (의대 64)
- 정희영 (치대 56)
- 정동구 (공대 57)
- 정철룡 (의대 55)
- 제영혜 (가정대 71)

- 조용원 (문리대 66)
- 조한원 (의대 57)
- 차민영 (의대 76)
- 차중환 (사대 54)
- 한효동 (공대 58)
- 홍성선 (약대 72)
- 홍중화 (약대 74)
- 황해룡 (공대 52)

뉴욕

- 故김광호 (문리대 62)
- 故한창섭 (문리대 57)
- 故김중률 (사대 51)
- 고애자 (음대 57)
- 권영국 (상대 60)
- 김승호 (공대 71)
- 김영용 (치대 55)
- 김한중 (의대 56)
- 배정희 (사대 54)
- 서영숙 (간호대 67)
- 석찬호 (의대 66)
- 손진태 (약대 67)
- 신용남 (농대 70)
- 오용허 (의대 66)
- 윤인숙 (간호대 63)
- 윤종숙 (약대 66)
- 이강홍 (상대 60)
- 이기영 (농대 70)
- 이대영 (문리대 64)
- 이영재 (상대 58)
- 이재덕 (법대 60)
- 이재량 (상대 61)
- 이전구 (농대 60)
- 이준행 (공대 47)
- 이태호 (상대 58)
- 조대영 (사대 53)
- 최수용 (상대 55)
- 최영태 (문리대 67)
- 최한용 (농대 58)
- 추재옥 (의대 57)
- 한태진 (의대 58)
-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 故고일석 (보건대 69)

- 故박경민 (의대 53)
- 김광수 (문리대 73)
- 고중성 (사대 75)
- 김문소 (수의대 61)
- 김용구 (공대 66)
- 오세경 (약대 61)
- 윤선홍 (치대 64)
- 이의인 (공대 68)
- 전신의 (문리대 57)
- 정정욱 (의대 60)
- 정태영 (문리대 71)
- 조만연 (상대 58)
-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 DC

- 故방은호 (약대 43)
- 강연식 (사대 58)
- 공순옥 (간호대 66)
- 권기현 (사대 53)
- 민흥기 (문리대 61)
- 박평일 (농대 69)
- 서휘열 (의대 57)
- 오인환 (문리대 63)
- 이내원 (사대 58)
- 이선구 (문리대65)
- 이윤주 (상대 63)
- 최지원 (의대 61)

미네소타

- 김권식 (공대 61)
- 김태환 (의대 58)
- 남세현 (공대 67)
- 문성인 (공대 88)
- 박현아 (공대 88)
- 변우진 (인문대 81)
- 송창원 (문리대53)
- 조형준 (문리대 62)

북가주

- 박중성 (법대 53)

- 박진영 (공대 66)
- 손석보 (공대 68)
- 윤정옥 (약대 50)
- 최경선 (농대 65)
- 한만섭 (공대 49)
- 황동하 (의대 65)

샌디에고

- 임천빈 (문리대 61)
- 유현주 (문리대 65)
- 진성호 (공대 64)

알래스카

- 윤제중 (농대 55)

오레곤

- 김상순 (상대 67)
- 박희진 (농대 78)
- 이은상 (상대 52)

워싱턴주

- 故김영일 (공대 53)
- 이명자 (간호대 74)
- 이희백 (의대 55)
- 임헌민 (공대 84)

조지아

- 김용건 (문리대 48)
- 석호태 (공대 85)
-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 故유시영 (문리대 68)

텍사스

- 박태우 (공대 64)
- 이광연 (공대 60)
- 조시호 (문리대 59)

플로리다

- 김중권 (의대 63)
- 임필순 (의대 54)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리대 55)
- 김현영 (수의대 58)
- 서중민 (공대 64)
- 신성식 (공대 56)
- 주기목 (수의대 68)

하와이

- 故최경운 (사대 51)

하틀랜드

- 故김명자 (문리대 62)
- 김시근 (공대 72)
- 배규영 (사대 68)
- 오명순 (가정대 69)
- 이교락 (의대 53)

휴스턴

- 박진섭 (의대 67)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 | | | | | | | |
|---|---|---|---|---|---|---|--|
| 남가주 강호석 (상81) 김광주 (문69) 김상순 (상67) 김수영 (사57) 김영덕 (법58) 김영배 (미61) 김택수 (의57) 나승욱 (문59) 노명호 (공61) 박인수 (농64) 박호현 (의52) 벤자민홍 (문53) | 심계식 (사63) 이범식 (공61) 이채진 (문55) 장윤희 (사54) 정명자 (사56) 정 황 (공64) 주정래 (상65) 최규황 (법69) 한홍택 (공60)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권정덕 (의58) | 김복영 (간69) 김종원 (가정58) 선종철(의57) 손진태 (약67) 신응남 (농70) 양명자(사63) 양성택 (상66) 이문봉(미76) 이상근 (경영84) 이상무(의56) 이영범 (공71)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 최준희 (의58) 최형무 (법69) 허영자 (약63) 뉴잉글랜드 김형범 (문57) 박종건 (의56) 미네소타 주한수 (수의62) 황호숙 (사65) 북가주 강재호 (상57) | 신규영 (공64) 위창호 (의67) 최경선 (농65) 황만익 (사59) 시카고 이덕수 (문58) 장윤일 (공60) 홍청일 (약57) 오하이오 유덕영 (공57) | 워싱턴 DC 권철수 (의68) 김내도 (공62) 박홍우 (문61) 우제형 (상54) 이내원 (사58) 이준영 (치74) 최귀재 (문63) 워싱턴주 윤석진 (문64) 이길송 (상57) 이회백 (의55) 최준한 (농58) | 조지아 서광모 (공65) 중부텍사스 이학호 (수의59) 테네시 서갑식 (공70) 텍사스 천양곡 (의63) |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필라델피아 고석규 (치65) 김국간 (치64) 오진석 (치56) 지흥민 (수61) 휴스턴 진기주 (상60) |
|---|---|---|---|---|---|---|--|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 2025.7.1~

| | | | |
|---|---|--|--|
|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상순 (상 67) 300 김영배 (미 61) 200 윤석철 (상 60) 2,000 이범식 (공61) 200 | 뉴욕 강에드워드 (사 60) 700 신응남 (농 70) 500 뉴잉글랜드 오세경 (약 61) 3,000 | 미네소타 김권식 50,000 북가주 황만익 (사59) 200 워싱턴 DC 권철수 (의68) 200 | 휴스턴 진기주 (상60) 1,000 지부 장학금 후원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 68) 10,000 |
|---|---|--|--|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a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동창회 후원금 | 동창회비 | 증신이사 | 업소록 광고비 | 특별 후원금 |
|--|---|--|--|--|
| <input type="checkbox"/> \$ 200 <input type="checkbox"/> \$ 500 <input type="checkbox"/> \$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 <input type="checkbox"/> \$100 (7/2025~6/202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7/2026~6/2027, 1년) <input type="checkbox"/> \$200 (7/2025~6/2027, 2년) | <input type="checkbox"/> \$ 3,000 <input type="checkbox"/> \$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50,000 플래티넘 <input type="checkbox"/>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input type="checkbox"/> \$ _____ | <input type="checkbox"/> \$240 (2025/7~2026/6, 1년/1차) <input type="checkbox"/> \$240 (2026/7~2027/6, 1년/2차) <input type="checkbox"/> \$480 (2025/7~2027/6, 2년)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 <input type="checkbox"/> SNUAA Scholar Program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관악연대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 |
| 동창회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 500 (1년) <input type="checkbox"/> \$ 1,000 (1년) |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뒷면 표지)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일반)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 400 |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 | |

| | | | | |
|---------|-------|-----------|-----------|----|
| 한국 이름 | 영어 이름 | 단과대 | 학년 (입학년도) | 지부 |
| 이메일 | | | 전화번호 | |
| 현주소 | | | | |
| 업소명 | 업소 주소 | | 전화번호 | |
| Check # | Date | Signature | | |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남가주 |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292

AAMKO Consulting Co.
 강산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os Angeles,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os Angeles,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reet
 Los Angeles, CA 90010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
 Diamond Bar, CA 91765

기계/기술/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900-1000
 4184 E. Conant Street
 Long Beach, CA 90808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1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모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T: 213-380-5060 (LA, CA)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siloamchung@gmail.com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os Angeles, CA 90004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의료/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nu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nu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운송/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
 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Law Offices E. PETER SHIN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익규 (상대 82)
 T: 201-978-7055
 120 Sylvan Ave #303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
 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oa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ree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nu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nue
 Englewood,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ree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의료/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 MD, VA, MN

기계/기술/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재정/보험/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 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 Seoul Korea |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oa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encevilla Hwy,
 Lilburm,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강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텍사스
UNIFAITH Co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뉴잉글랜드
URI
 이강원 (공대 66)
 T: 401-874-2695
 2 E. Alumni Ave. Kingston, RI 02881
 leekw@uri.edu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 **SNUAA Forum**
- **Entrepreneurship Network**
- **SNUAA Market**

우리 동창회는 동문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platform을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ADVERTISE WITH US



contact@snuaa.org

제18대 미주동창회

회장 황효숙(사)

상임고문: 송창원(문), 김권식(공), 신학철(공)
 고문: 한홍택(공) IT 담당
 이희윤(농)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이준수(공) 조직관리 담당
 신응남(농) 법률 담당
 박평일(농) 친선 담당
 오인환(문) 전략개발 담당
 김태환(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의학 담당
 문성인(공) 지부지원 담당

차기회장 박상근(법)

명예회장 이상강(의)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노명호(공)

집행부

사무총장: 박현아(공)
 총무국장: 임동근(경제)
 재무국장: 손창수(상)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발행인: 황효숙(사)
 편집고문: 박용필(문)
 편집장: 신복례(인문)
 편집위원:
 김정필(공), 정태영(문), 이준수(공),
 한정희(미), 최승희(사회대), 최화진(음),
 문성인(공), 김량국(사), 이춘우(자연대),
 정해원(자연대), 백승아(자유전공)
 편집디자인: 오은아

지속가능 발전기획 위원회

위원장: 이희윤(농)
 위원: 박현아(공), 강경철(공)

브레인 네트워크

국장: 변정민(공)
 SNU 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재훈(공)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 위원장:
 김량국(사)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신응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회칙위원회

위원장: 이준수(공)

감사

김영석(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651) 308-0796 | 이메일 contact@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미주동창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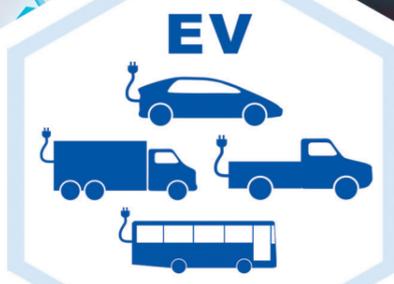
알림: 2025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org

| | | | | |
|---|--|---|--|---|
| <p>남加州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채규황(법대69) T: (818) 489-7892 Kchae100@yahoo.com 차기 양수진(간호대80) T: (714) 335-2148 회장 sujinyang2011@gmail.com</p> | <p>캐나다 밴쿠버 (Jan~Dec) 송태영(자연대84) T: (778) 866-8312 chris.van.bc@gmail.com</p> | <p>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70) T: (403) 617-7585 MonicaWshaw.ca</p> | <p>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p> | |
| <p>북加州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대79) T: (408) 464-4502 beomsupkim@gmail.com</p> | <p>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78) T: (503) 648-0775 hjpark@flonomix.com</p> | <p>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55) T: (907) 223-0887 jaejyoon@hotmail.com</p> | <p>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원덕수(공대건축학과72) T: (617) 921-6798 douglasdwohn@gmail.com</p> | |
| <p>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박상호(치대80) T: (516) 776-0449 nomacast@gmail.com</p> | <p>캐나다</p> | | | <p>미시간 Michigan (Jul~Jun) 이광진(공대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p> |
| <p>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83) T: (425) 998-4150 Jklee234@yahoo.com</p> | <p>오하이오주 Ohio (Jan~Dec) 이성우(상대72) T: (614) 370-5761 Rimshake@hotmail.com</p> | <p>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77) T: (217) 508-8711 nsung@hawaii.edu</p> | <p>뉴욕 NY/NJ (Jul~Jun) 김병순(사회대82) T: (703) 407-4928 Kbs8717@gmail.com</p> | |
| <p>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85) T: (469) 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p> | <p>워싱턴 DC DC/MD/VA/WV (Jan~Dec) 남욱현(경영대84) T: (703) 898-6429 minamusa@yahoo.com</p> | <p>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91) T: (781) 812-8778 imtenor@hotmail.com</p> | <p>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김영석(음대74) T: (215) 287-3939 imtenor@hotmail.com</p> | |
| <p>룩키아몬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73) mungichoi@hotmail.com</p> | <p>중부 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59) T: (512) 290-1911 Hakho3830@gmail.com</p> | <p>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93) T: (734) 904-9672 hanseup@ece.utah.edu</p> | <p>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85) T: (828) 242-7150 hwajinmdma@gmail.com</p> | |
| <p>휴스턴 H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대91) 회장 kunhok@gmail.com</p> | <p>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p> | <p>하들랜드 IA/MO/NE/AR/OK (Jan~Dec) 이주현(미대92) T: (913) 220-3021 June.cho@gmail.com</p> | <p>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78) T: (417) 277-1636 sinho.jung@duke.edu</p> | |
| <p>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65) T: (561) 962-5185 yuhn@fau.edu</p> | <p>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p> | | | |



CHRYSAN

Automotive Lubricants & Specialty Chemicals



Chrysan® SYN 668



Authorized by ALLISON TRANSMISSION, INC.
• TES 668 •
Complies with TES 668 specifications



Chrysan® PS-386 Synthetic MTF



Eaton Approved Lubricant

Chrysan Industries, Inc. 14707 Keel Street, Plymouth, MI 48170
Phone: (734) 451-5411 www.chrysanindustries.com

Regional Headquarters
Shanghai, China | Seoul, South Korea | Nuevo Leon, Mexico



고광국 (공대 54) · 고국화 (공대 56)



2026 SNUAA-USA

SCHOLARSHIP

for SNU ISP

서울대학교
국제 하계 프로그램
장학생 선발

AWARD

10 Scholarships for \$10,000 each

- Covers direct costs to SNU for SNU ISP in 2026
- Remaining balance (~\$5,000) paid to student

ELIGIBILITY

- Undergraduate student enrolled in a 4-year U.S. college/ university as of Oct 1, 2025
-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Korean ancestry
- No previous award of an SNUAA-USA Scholarship

ONLINE INFO

Scholarship Info: <https://snuaa.org/snuaa-scholarships/>
Application: <https://snuaa.org/snuaa-scholarship-application/>
SNU ISP: <https://summer.snu.ac.kr/>

QUESTIONS

contact@snuaa.org

DEADLINE

OCTOBER 31, 2025



Online Application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